

지방소멸 위기 先대응 이민정책 근거 만든다

〈지역기반〉

법무부, 관련법 제정 착수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용역 공고를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지만,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에는 인구 감소·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별 차이와 특성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계절근로와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술 인력 지자체 추천 등이다. 출생률과 생산 인구 저하로 지역의 외국인력 도입 요구가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 지역기반 비자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기준 계절근로 정책에는 농·어촌 지자체 131개가 참여하고 2만9286명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특화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 6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3291명, 숙련기능인력에는 17개 지자체에 5500명이 배정됐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왔다. 그러

외노자 증가했지만 수도권 쏠림

지역별 특성 고려 정책마련 추진

이민관리공단 설립 실무 지원도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내부일정 조율 후 조만간 재공고

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비자 등 업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해외 국가의 유사 사례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역할도 연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역 이민정책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법무부가 ‘지역이민 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국내 금 거래대금 ‘역대 최대’
중동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 거래가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일평균 금 거래대금은 16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KRX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 밸류업 구체화…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상목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노력社, 법인세 세액공제
내년 예산 모든 분야 원점 재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최 부총리가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데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Zerobase)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분야를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2월 경상수지가 68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미국발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와 ‘킹달러’(달러 강세)가 원화를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등과 같은 ‘달러화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관련기사3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에 이어 최근 채권투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 것도 외환시장을

‘킹달러’에 등 터지는 원화… 더 간절해진 ‘WGBI 편입’

안정시키고, 물가 급등세까지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0원에 마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초 대비 7.7% 평가절하됐다. 위안화(-2%), 유로화(-3.6%)는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5.0%), 이스라엘의 셰켈(-4.9%)보다도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평가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을 기록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환율로 100을 넘으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본다. 우리 원화의 실질가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스페셜 리포트

원화 가치, OECD 하위 다섯 번째 지수 편입 땀 최대 90兆 국내 유입
국채·외환시장 안정 ‘마중물’ 기대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절하율
(단위: %)* 연초 대비 4월 18일 중가 기준
* 출처: 블룸버그

480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원화 러시아 루블 이스라엘 셰켈

-3.60

-9.60

-2

-7.70

-5.00

-4.90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70.3), 튀르키예(90.2), 노르웨이(95.3), 이스라엘(95.6)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견된 수순이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차는 역대 최고 수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진 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국내 내수 경기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는 반면, 견고한 미국의 달러가치를 버텨내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달러화 자금 조달원 다양화’를 주문한다. WGBI를 그중 하나로 거론한다. WGBI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 규모는 2조5000억 달러(약 3371조 원)

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WGBI에 가입할 경우 이 중 80조~90조 원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채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에 기댄 캐리트레이드 자금도 늘어날 수 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미 채권쪽에서는 WGBI 편입을 기대하고 상당수준 자금 흐름이 강화하고 있다”며 “단기 재정거래 유인이 아닌 중장기 포트폴리오 투자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평균 듀레이션도 6년 내외까지 확대했다.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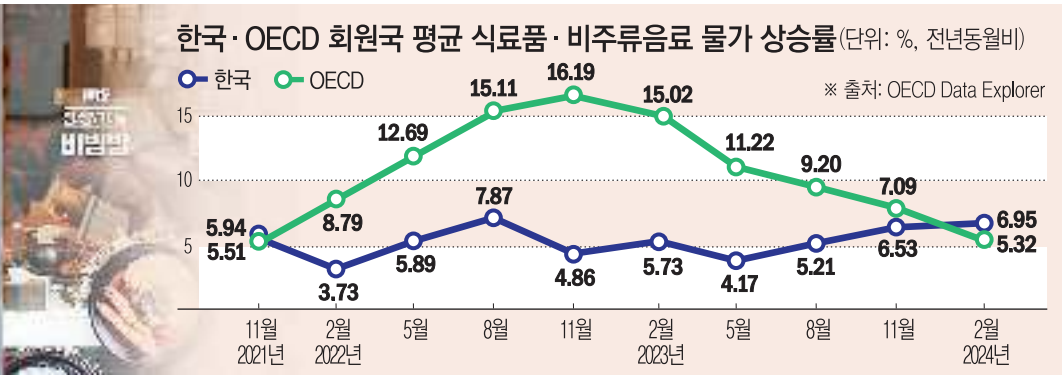
‘金먹거리’ 널린 한국… 물가 상승률 ‘OECD 3위’

2월 식료품·음료 물가상승률
과일이 상승 전인… 韓 6.95%
27개월 만에 OECD 평균 추월
튀르키예·아이슬란드 이어 3위
정부, 하반기 하향 안정화 기대

2월 기준 우리나라의 먹거리(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OECD 회원국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의 지원 효과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거나,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95%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2월 기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OECD 평균 먹거리 물가는 2022년 2

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상승해 같은 해 11월 16.19%로 정점을 찍었다.

러시아는 밀과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도 세계적인 밀 수출국이다. 지난해에는 7월(9.52%) 10%를 밑돈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준인 5%대로 떨어지는 등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월 3.81%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5~7%대로 올라섰고 2월에는 OECD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는 사과·배 등 과일이 주로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사과 물가는 88.2%, 배는 87.8%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문제는 식품 물가 외에도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 이후 불안한 국제유가도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강달러 기조에 따른 고환율은 수입 원

재료 가격을 끌어올려 최근 줄줄이 오름세인 버거·초콜릿·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의 지원 효과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물가 가격은 내림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석유류 물가는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하향 안정화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인 2.6%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하겠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는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기존 생각을 재확인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1면서 계속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비효율 줄여 민생토론 소요 반영
민생지원금·추경 요구엔 부정적

분야별로 예산도 재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일본과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하고 원화 움직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낸 것이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전망에 대해 과거 보다는 강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구의 날 54주년



2024 기후변화주간

에너지 아껴쓰고 | 전기·수소차로 달리고 | 다시쓰고 나눠쓰고 | 포인트로 돌려받고



탄소중립 실천포털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주제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함이 아닌 지구를 구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으로 돌려받는 '기대와는 다른' 긍정적인 일임을 의미합니다.

04.22
- 04.28

원화, 외부 충격에 유독 취약… “달러 유입 채널 확대 필요”

환율 방파제 ‘WGBI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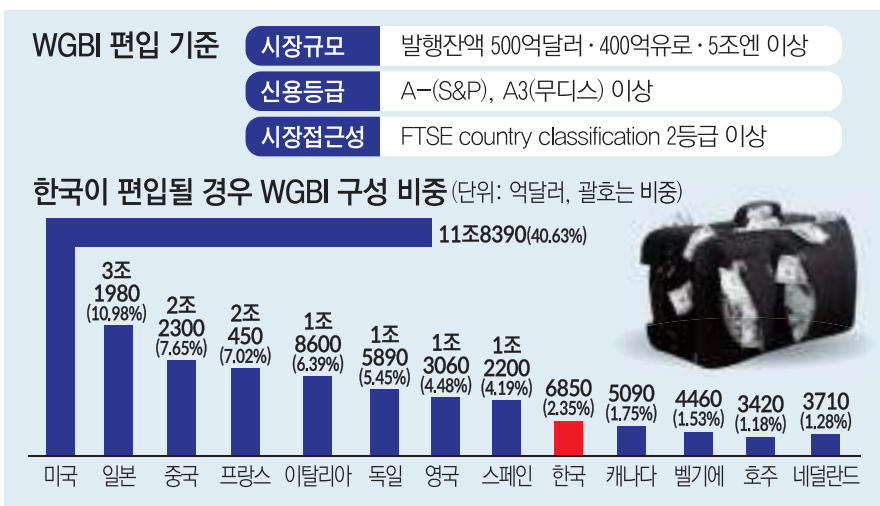
외국인 중장기 투자금 적은 탓
정부 개입에도 환율 ‘고공행진’

시장선 9월 ‘WGBI’ 편입 기대
일각 “빨라야 내년 3월 가능성”

“한국을 떠날 생각은 없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지금 미국 금리가 높을 때 미국채를 싼값에 살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나중에 미국 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 둘째,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는 낮지만, 불가항력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가 나쁘지 않아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외국계 운용사 A씨)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한국을 떠나는 자금은 많지 않다.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총 15조8000억 원이다.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장채권 보유 규모도 244조3000억 원이나 된다. 4월 들어서도 코스피시장에서 2조9000억 원어치 사들였다.

그런데도 환율이 뛰고 있다. 이달 16일 엔·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역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까지 단 4차례에 불과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외국인 주주 배당 송금까지 겹쳤지만, 이래적이라는 평가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외 환경도 문제지만, 취약한 ‘달러조달 환경’을 한 원인으로 꼽는다.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등을 통해 ‘달러화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편입의 선행 조건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꼽힌다.

◇유독 흔들리는 원화 왜 = 잇따른 시장 개입과 한은의 긴축통화정책 유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미

국의 고금리 장기화(금리인상) 전망이 힘을 얻으며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16일(현지시간) 유로·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6.37까지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는 각국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늦춰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가능성 또한 높인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다.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들어올 창구가 줄어들다.

◇WGBI 편입, 중장기 자금 유입 효과 =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의 외환시장이 대외충격에 취약한 것에 대해 ‘달러화 자금 조달원’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25개국의 국채가 편입된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분류된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산하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의 스채인지(FTSE Russell)’에서 관리하며, 추종 자금은 2조5000억달러(약 3400조 원) 규모다.

고했다. WGBI 편입 등을 통해 달러 유입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80조~90조 원가량의 외국인 투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보유 비중이 30~40%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를 밑돌고 있다”면서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의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채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9월 WGBI 편입 가능성은 =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제통합계좌 시작 → 7월

외환시장 개방 → 9월 WGBI 편입.’ 시장 전문가들이 한국의 9월 WGBI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국제통합계좌와 외환시장 개방을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대폭 낮추면, 9월 편입까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22년 9월 FTSE 러셀의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에 올랐다. 해외 사례를 보면 통상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편입까지 2년 내외가 걸린다. 9월이면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오른 지 딱 2년을 채운다.

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 “외국을 보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게 중론인데,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돼 이 부분도 충족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부터 일본, 홍콩, 런던 등에서 열심히 세일즈하는 걸로 봐서 정부의 9월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내년 3월로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WGBI 편입은 빨라야 내년 3월”이라며 “한국의 국제예탁결제 시스템 부재와 폐쇄적인 환율 시스템을 고려하면 즉시 조건 충족은 어렵고 국제통합계좌의 실제 활용도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2009년 9월 16일, 국제은행통신협회 SWIFT가 홍콩에서 개최한 SIBOS(SWIFT International Banking Operations Seminar) 국제 총회. 금융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자리에서 기대감에 들뜬 표정으로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한 무리가 있었다.

한국에서 온 기획재정부,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었다.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韓은 양치기 소년… 과거 국제통합계좌 번복으로 신뢰 잃어”

2010년 달러 과다유입 우려로 폐지

(Euroclear)와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외국인 국제통합계좌를 기념해 한국 국제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이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놓고, 1

년 3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어 버리니 국제적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일관성과 신뢰인데 한국은 그걸 공식적으로 파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한순간에 불신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제통합계좌 시행은 이번이처

음은 아니다. 2009년 10월부터 유로클리어와 국제통합계좌를 운영했지만, 이듬해 12월 폐지했다. 폐지 이유는 표면상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였지만, 근본적 원인은 ‘관치금융’이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달러화가 국내 채권시장으로 과다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9월 WGBI 편입을 결정짓는 요소 역시 이러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국제통합계좌 등 외국인 투자 편의를 높이는 조치가 재개하더라도 과거처럼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사례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WGBI 최종 편입 여부는 FTSE 러셀의 정성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도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희인 기자 hihello@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림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www.kosha.or.kr/selfcheck

내가 일하는 중에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을까?

공기중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성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측정 가능 물질 여부는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지원내용

무료로 제공하는 시료채취기를 통해 화학물질을 직접 채취하고 결과를 안내 받아보세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료채취기 제공

신청자에게 시료채취기를 '1회 최대 20건' 무상 제공

분석결과 제공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제공

분석결과

- ☑ A물질
- 즉시 개선 필요
- ☑ B물질
- 개선 필요
- ☑ C물질
- 현상태 유지

신청안내

- 1 www.kosha.or.kr/selfcheck 또는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 2 로그인(휴대폰 번호로 인증)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가능
- 3 시료 신청 ▶1회 20개까지 가능하며, 추가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
- 4 공단에서 접수 후 신청자에게 시료 배송
- 5 시료 수령 및 시료 채취
▶시료에 동봉된 안내문 또는 QR코드 영상에 따라 작업 중 시료 채취
- 6 시료를 밀봉하여 공단 분석실로 시료 발송(착불)
▶우체국택배(착불) 이용
- 7 시료접수 후 약 2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

〈애플·MS·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메타〉

증시에 칼 꽂은 중동... 美 ‘M7’ 쓰러진 시황 일으킬까

빅테크 어닝시즌 개막

미국 증시가 중동 지역의 불안감 고조와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 퇴색 등으로 극도의 부진에 빠진 가운데 7개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7(M7)이 위기에 놓인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M7에 속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구글 모회사 알파벳, 테슬라 등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애플과 아마존은 다음 주 실적을 공개한다.

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 울들어빠르게 과열됐던 증시도 주춤해 진 상황이다.

나스닥 상장 대형주를 종합한 나스닥 100지수는 4주 연속 떨어져 2022년 12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증시 벤치마크 S&P500지수는 5000선 아래로 내려앉으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지난달 말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4%대로 내려왔다. M7의 실적이 미국 증시가 부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희망적인 부분은 M7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블룸버그인텔

리전스에 따르면 M7의 1분기 전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S&P500지수 종목 전체 평균 순이익 예상 증가율인 2.4%를 크게 웃돈 것이다.

다만 M7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엔비디아의 1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04.8%에 이른다.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M7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은 23%로 뚝 떨어진다. 애플과 테슬라는 1분기에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울 엔비디아의 AI 관련 계획이 당분간 부재인 것도 문제다. 엔비디아는 한 달 남짓 남은 내달 22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증시가 당장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

중동 사태·금리인하 불발 불안 속

MS·메타·알파벳 등 금주 실적 발표

M7, 1분기 순이익 38% 증가 전망

엔비디아에 과도하게 의존 지적도

“투자자들 ‘AI 워싱 기업’ 주의를”

다는 관측도 나온다.

모건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다니엘 스켈리 자산관리 전략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AI”라며 “기술주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리

서치 업체 테크널리시스의 밥 오도넬 대표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면서도 “큰수의 법칙은 특정 시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첫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끝나기 시작하면 성장률은 주춤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가 기술기업들의 주가를 밀어 올린 만큼 이제는 성과를 보여 줘야 할 때라는 의견도 있다. MS와 아마존, 구글 등이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차세대 제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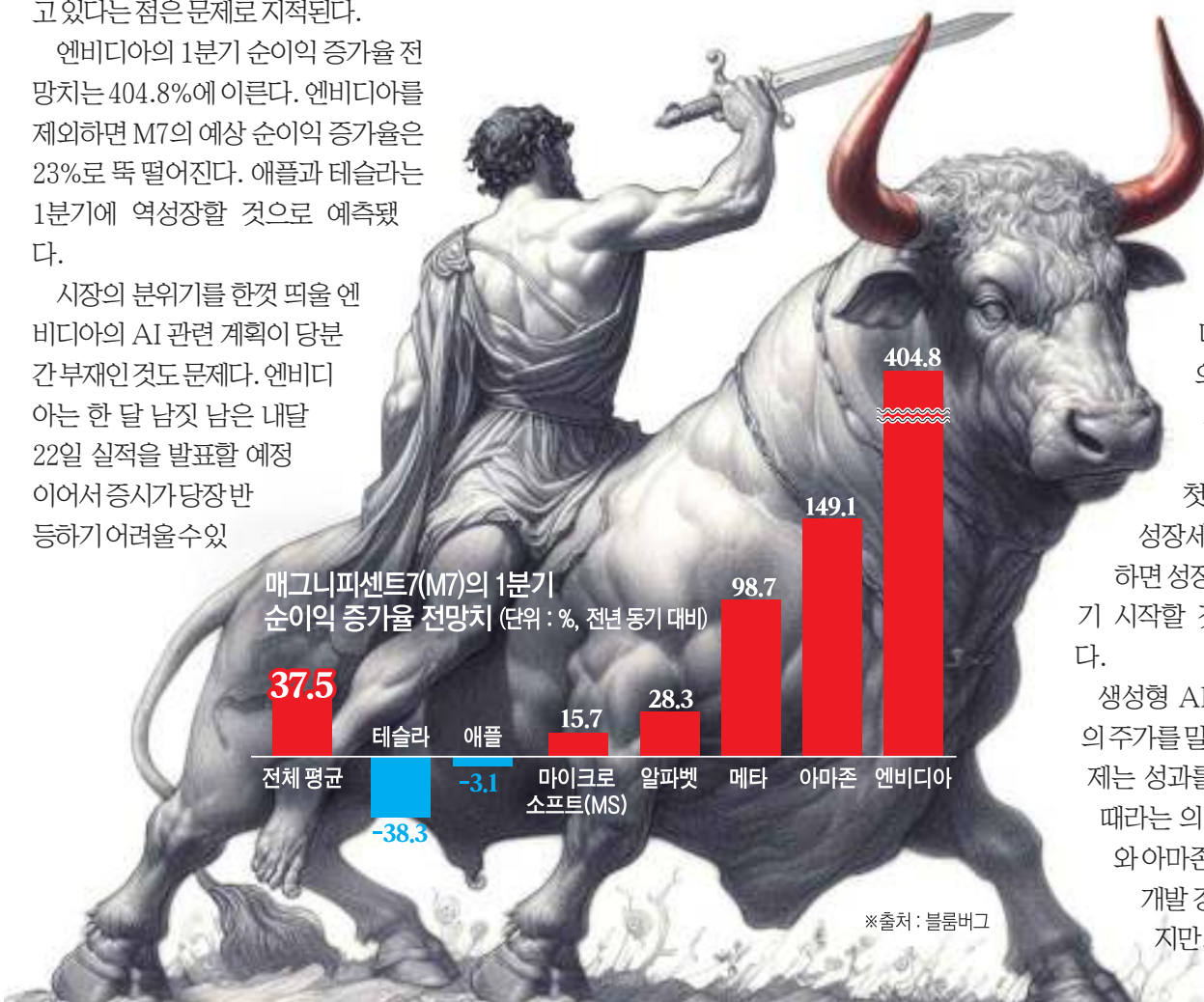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금융컨설팅업체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람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엔비디아는 실제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기업이지만 기술 전반, 특히 AI 테마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좀 더 분별력을 갖추게 됐다”며 “투자자들은 기업이 실제로 AI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적어도 AI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직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짚었다.

시장조사기관 퓨처럼그룹의 대니얼 뉴먼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은 AI와 무관하지만, AI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AI 워싱’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M7 외에도 향후 2주 동안 S&P500지수에 상장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조사기관 LSEG에 따르면 현재 S&P500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비율(PE)은 20년 장기 평균(15.7배)을 웃도는 20배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통상 PER이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된 것으로 본다.

사글람벤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비밀유지계약〉

LG-인국공, 로봇협력 확대... NDA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로봇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그간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던 LG전자의 수혜 기대감도 커졌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G전자는 최근 로봇 개발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NDA는 당사자 간 기술 제휴 등을 맺는 경우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향후 양사는 로봇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30년까지 공항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항 이용 전 과정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기종 로봇 제작 및 5G 디지털 트윈 관제 구축 사업’ 관련 사전 규격(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을 내놨다. 다기종 자율주행 로봇 제작,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이동 관제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측정해 최적의 경로로 길을 안내하

다기종 로봇제작 사업 맞손

인천공항 2030년 디지털 전환

로봇 개발자료 비밀유지 계약

비상상황 탐지 시스템 구축 등

LG전자 로봇산업 수혜 기대

는 로봇,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을 순찰하고 전파하는 로봇, 대화 가능한 셀프체크인 로봇, 전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도슨트 로봇 등 다양한 자율 주행 로봇을 제작한다. 이러한 로봇들은 5G 특화망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실시간 위치

추적, 비상 상황 탐지·대응, 제어 명령 등 로봇을 관제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에 함께 추진할 로봇 기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로봇 사업을 함께 해왔던 LG전자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앞서 2016년 7월 ‘지능형 로봇 서비스 도입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자체 개발한 청소 로봇과 안내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로서도 로봇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만큼 인천국제공항과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전자는 자사의 로봇 브랜드 ‘클로이’(CLOi·사진)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월에는 조선호텔 앤리조트와 서비스 로봇 개발 협력을 맺기도 했다. 호텔에서 객실 정비, 식자재 무인 운반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만들 계획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의대 자율 결정”한 발 물러선 정부 의대교수 집단사직 막을 수 있을까

25일부터 사직서 효력

정부 “신입생 대학 자율 ↑” 제안했지만 의료계 “수용 불가...원점 재검토” 강수 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증원강행 예고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달 18일 내년 대학입시의 경우 대학별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바로 이튿날 이를 수용, 의대 증원 축소의 여지를 주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00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얻으면서,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실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학장들도 21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후속 논의를 위해 의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에 실제로 사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를 인사과에 제출하지 않고 비대위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유혜은 기자 euna@

“위기 감염 막자”… ‘1000억 2차 펀드’ 속도 내는 저축銀

부동산 PF시장 정상화 노력

신한·KB저축銀 등 18개사
PF 대출 연착륙 선제적 지원
이번주내로 펀드 운용사 선정
2분기내 집행… 1차보다 빨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저축은행업계의 2차 펀드 조성이 가시화됐다. 조성 후 집행까지 약 6개월이 걸렸던 1차 펀드보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늦어도 6월 말까지 2차 펀드 대부분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PF 부실채권을 정리해 대손충당금 부담 등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은 ‘2차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 펀드(2차 펀드)’의 운용사 선정, 투자 규모 확정 등에 나섰다. 19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과 웰컴자산운용 등이 펀드 투자 참여를 결정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펀드는 PF 대출 연착륙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두 번째 펀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잔액
(단위: 원, 2023년 12월 말)

OK	1조831억	모아	2812억
한국투자	8111억	대신	2703억
웰컴	5899억	신한	2690억
다올	5091억	애뮤온	2662억
상상인	3350억	JT	2431억
DB	3098억		

※ 출처: 각 사 통일경영공시

단된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지원하는 자금책이다. 투자대상 PF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따라 자산 유동화를 통한 투자, 펀드 내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 업계는 지난해 9월 330억 원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지난달 말 5개 사업장에 전액 집행을 완료했다.

2차 펀드는 저축은행 18개사가 950억 원 규모 안팎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저축은행들은 19일 이뤄진 운용사와의 회의를 참고해 투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사가 50억~100억 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면 펀드 규모는 2차 펀드만 1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상이나 온다.

18개사에는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과



부동산 PF 대출잔액 규모가 큰 곳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상위 2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살펴본 결과, 잔액이 많은 11개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총 4조9678억 원으로 집계됐다. OK저축은행이 1조8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저축은행(8111억 원), 웰컴저축은행(5899억 원), 다올저축은행(509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르면 이번 주내로 펀드 운용사 선정이 이뤄진다. 2차 펀드는 규모가 1차 펀드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용사 2곳이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운용사가 선정되고 개별 저축은행이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 중앙회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 정해질 방침이다. 이후 투자사업장 선별, 투자 타당성 등 검토가 이뤄진다. 1차 펀드 때보다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업권 상황을 따졌을 때 2분기 내로 사업장 자금 투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를 넘기게 되면 저축은행업계 부실채권으로 인한 연체율, 대손충당금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2분기 전에 펀드 대부분을 소진해달라는 요청이 (운용사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6.94%로 전년 말(2.05%)보다 4.89%포인트(p)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펀드를 추가 조성해 저축은행 PF 대출 연착륙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2차 펀드는 1차 펀드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1000억 원도 전체 PF 대출 규모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므로 2차 펀드 집행에 속도를 낸 이후 3, 4차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넓은 규제 가로막혀 물꼬 못 트는 ‘M&A’

대형저축銀, 부실기업 인수 원해도
수도권 구역 인가 기준 탓에 힘들어
“건전·수익성 개선위해 완화 시급”

저축은행 업계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자 여력조차 없는 부실한 소형 저축은행은 정리해야 업계 전체적인 건전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가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꼽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M&A 과정에 제동이 걸리거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M&A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라 부실한 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가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4곳 등 총 6곳(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추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해 수도

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 주주들이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는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각자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총여신의 50%(수도권), 40%(비수도권) 이상을 취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대출도 이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이미 대부분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영업점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으로 받는데도, 해당 차주의 거주지로 영업구역 내 여신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의 취급비중을 높이면 의무여신비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각 수요는 점차 커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더 M&A가 절실해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고금리 경쟁이 없어 올해는 작년과 달리 조달비용은 줄었지만, 건전성 관리로 여신(대출)을 줄이느라 조달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익도 감소했다. 여기에 총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우거나, 매물로 내놓으려는 움직임 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장관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
주요 질병부터 치매까지 평생 보장하는
[평생건강보험]

★★★★★
최신 암치료까지 보장하는
[암보험]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맞춘
[종합건강보험]
(5만 원 이상)

★★★★★
합리적으로 뇌, 심장을 보장하는
[뇌·심장보험]

건강보장준

교보생명 건강보장보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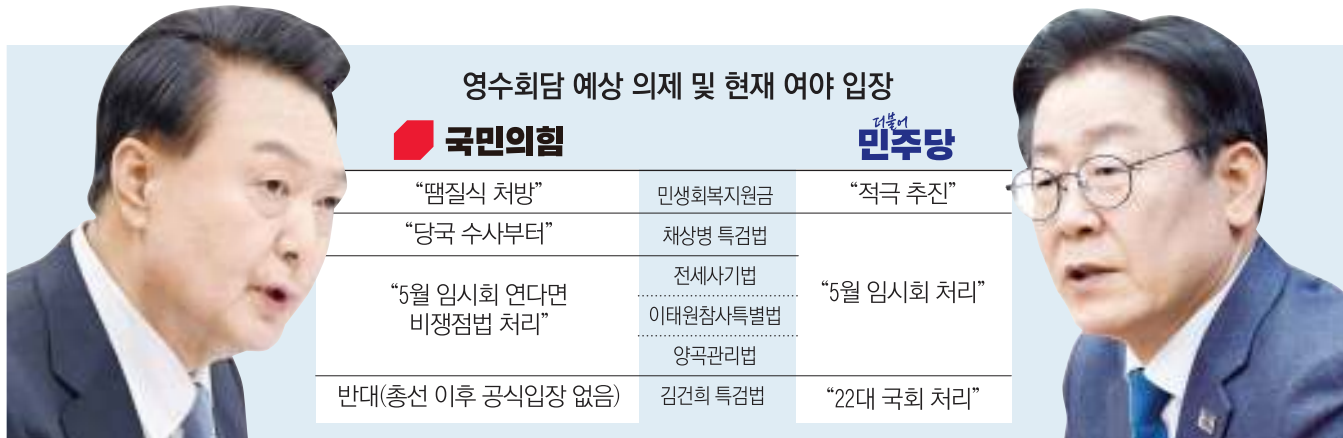
교보생명 건강보장군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람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건전 이념의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에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암보험금(사망)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단,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호려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호려회복)일로부터 부활(호려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단,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활(호려회복)일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404-13 상품이계통팀(2024.04.02~2025.04.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2077호(2024.04.09~2025.04.08)

KYOBOS

교보생명

尹·李 첫 '영수회담'... 민생추경·채상병 특검, 의제 오를까



영수회담 예상 의제 및 현재 여야 입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땀집식 처방”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추진”
“당국 수사부터”	채상병 특검법	“5월 임시회 처리”
“5월 임시회 연다면 비쟁점법 처리”	전세사기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반대(총선 이후 공식입장 없음)	간건회 특검법	“22대 국회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領袖)회담’을 24~25일째 열 것으로 전망된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 체적인 시점·의제·형식 등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주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그동안 영수회담은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그동안 여야 협치를 끌어내는 마당 역할을 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8번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불발됐다.

이번 회답에서 이 대표는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8번 거절한 尹, 총선 후 먼저 제안
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꺼낼듯
양곡법·특검법 등 거론될지도 관심

정치권 “민생 현안 중심 논의될 것”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주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 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인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끝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
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를 위한 5월 임시회 개최에 부정적인 기류

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법에 종결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면 모든 수사가 끝난다.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채상병특검법추진과별개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굳이 대정부 압박 카드인 특검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검법(김여사 특검법)도 실무진 조율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수용 불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민주당 의원은“굳이 회담에서 말하지 않아도 될 사안 때문에 판이 깨지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대표 측 관계자도 “특검은 국회에서 하면 된다. 대통령과의 자리에선 민생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말씀하실 것”이라며 “영수회담 이후 국민의힘이 회담 전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내는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정대한 기자 vishalist@·김은재 기자 silverash@

尹, '투톱 인선' 신중 또 신중 비서실장 먼저 결단 내릴 듯

협치 이끌 '가교형 총리' 고민중
청문회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장제원·원희룡·이정현 등 몰망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 이후 '쇄신'의 상징이 될 첫인적 개편인 만큼 신중하게 후보군을 좁히고 있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고사하거나 거론된 후보군을 두고 여야 양측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1일 현재까지도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4·10 총선 직후인 11일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후 초기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11일째 장고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기다려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총선 이후 첫 인적 개편인 만큼 남은
년의 임기 동안 야당과 대화를 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쇄신'의 상징성을 담은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치러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할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합승'을 거두면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친윤 색채가 짙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왔던 인물이 임명될 경우 총선 이후 '쇄신'이라는 상징성을 잃을 수 있고, 야당과 여권 내부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야권 인사를 임명할 경우엔 여권의 반발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박영선 전 장관 외에도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진석 의원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도 새로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쇄신'과 '소통'의 의미가 반영된 인물을 최대한 물색하려는 모습이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move**



작품명 **Move Forward**

Energy Saving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SK엔무브의 **그린픽처**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전망… 건전재정 ‘흔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다.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 원)을 뺀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목표로 한 관리재

“3% 이내” 공언 공염불에 그쳐

작년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

정부 목표 규모보다 29조 확대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감소

재정준칙 법안도 자동폐기 위기

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28조8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 예산을 비껴간 적자 폭 확대는 총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

수 결손이다.

이는 사실상 건전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맞춰 2023년도 예산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명목 2236조 3000억 원·잠정)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 비율(2.6%)보다 1.3% 포인트(p) 더 많은 것이다.

총지출(610조7000억 원)이 애초 목표

대비 28조8000억 원 줄었음에도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이보다 많은 51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 적자 비율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급감이 적자 비율을 키운 셈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4조6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측됐다. 2년 연속 3% 이내 관리 실패가 예고된 셈이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 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

4000억 원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전년 대비 60조 원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기름값 3주 연속 상승세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여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95.1원으로 전주 대비 21.8원 상승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18일 1701.69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0일(1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리터당 1562.4원으로 전주보다 11.1원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21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임금체불 급증에… 고용부, 사법처리 강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출석 거부 땀 즉시 체포영장 청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

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 처분한다.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 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악의적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 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농촌 공간 재배치… 재생지역에 300억 지원

〈5년간〉

농식품부, 재구조화 방침

정부가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 배분을 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33년 농촌 창업 비율을 25%로 높이고, 농촌 관광·방문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 기준 68곳에서 2033년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창업 중 농촌 지역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방침에 따라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과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농촌산업지구와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특화지구 도입해 용도별 사용
지자체 재생 계획 땀 국비 지원
2033년까지 농촌 창업 비율 25%
관광·방문율 65%로 높이기로

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기능을 유지하고 인구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서비스 거점 지역을 육성해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시·군에서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는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도록 했고,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은 복합 단지로 주민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한다.

기업과 농촌 자원이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직농장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관, 생태, 문화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한정되지 않은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귀농과 귀촌 형식 외에도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위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방식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구 지키고 혜택은 ‘덤’… 우리들의 즐거운 ‘탄생’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주제
소동행사·미래세대 영상공모 등
28일까지 ‘지구의 날’ 맞이 캠페인

“기후위기 극복 적극적 참여 중요”

정부가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펼친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임을 알리는 게 취지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에 열린 기념행사에서 ‘지구의 날’을 선언한 것에서 유래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정부에서 2009년부터 이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기후행동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구를 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은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다”며 “지구를 구했다는 기쁨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를 통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2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동행사 △지자체별 기념행사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



콩야 레스토랑과 함께하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 포스터. 사진제공 환경부

사와 캠페인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넷마블 엠메비의 ‘콩야’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콩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환경부 소속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소속 국민 응원단 ‘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서포터즈는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 하나은행,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AK플라자, HD 현대오일뱅크 △다회용컵 이용 분야 SE입파워, 디비아이, 디투리소스 △다회용기 사용 분야 클라우드스톤, 더그리트 △리필스테이션 분야 보틀팩토리 △고품질재활용품 회수 분야 수퍼민, 성남시 등 12개 기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이들 기

관·기업은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이밖에 22~23일 코엑스에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17개 기

업·단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점이 눈에 띈다.

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를 새겨 이를 알리고 LG전자와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정보를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 활동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먼저 네이버 지구의 날 스페셜 로고를 공개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익 활동’을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의 공익 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실천 문제 맞추기, 나만의 실천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이밖에 환경부 SNS와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을 남기는 행사에 참여하면 기후변화주간 기념 출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동 행사가 열린다.

서울과 과천, 세종의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기업건물 및 송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명소도 참여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같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텀블러·전자영수증 실천하면 포인트 ‘평평’

탄소중립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가능
제도 도입 3년차 예산 6배로 확대

올해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는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로 이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혜택의 대표 주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이하 제도)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9년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이름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실천 항목과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전자영수증 발급 회당 100원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개당 3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 회당 2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 회당 2000원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회당 1000원 △무공해차 대여 km당 100원 △친환경제품 구매 건당 1000원 △고

품질 재활용품 회수 kg당 100원 △폐휴대폰 수거 건당 1000원 △미래세대 실천 행동인 기후행동 1.5℃ 앱에서 연 4회 실천챌린지 참여 등이 있다.

참여는 간단하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회원가입을 한 후 실천항목별 참여 설정 등을 게시판에서 확인한 뒤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한다. 이후 포인트를 적립받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된다.

지금 방법은 계좌 입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네이버포인트, 기부 등 다양하며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고 있다. 제도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 3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36만 명에 달한다.

관련 인센티브 지급액도 2022년 24억 5600만 원에서 지난해 8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147억 6500만 원으로 뛰었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연 2회 소비자 실천 금액의 10%를 지급해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비이오주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이란·이스라엘 확전 피했지만… “긴장 완화” vs “불시 여전”

이란, 이스라엘 공습에 반격 안해
외신 “양국 전면전 피하고 싶어해”
중동 그림자전쟁 톨 깨진 건 우려

이스라엘 ‘팔 유엔 가입안’ 항의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중동 긴장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양국이 체면과 실리를 챙기는 공격을 주고받음으로써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불안을 부추겼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우선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배경에는 확전을 경계하는 듯한 이란 측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이란은 시리아 영사관 폭격

이스라엘·이란 충돌 상황

1일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13일	이란 300기 이상 공중무기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 공격
19일	이란 이스파한주 제8육군항공대 기지 폭발음 “이스라엘 전투기, 이란 레이더 기지에 미사일 3발 발사”

※ 출처: 미국 ABC방송



에 대한 보복을 실행하고 나서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이란이 튀르키예를 통해 미국에 먼저 공격 계획을 통보해 확전 가능성을 낮추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스라엘이 전날 본토를 공격한 후에도 이란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놔다. 우선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미국 ABC뉴스 보도에 즉각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IRNA통신이나 타스님뉴스 등 이란 관영·반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피격 지역이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이란 매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과소평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후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하이 장난감’에 비유하며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고, 한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즉각적인 반격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공격 이후 반격하기까지 얼마간의 시차를 두며 조심스러

운 태도를 보였다. 이란을 공격한 후에도 별다른 언사를 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문제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적당한 선에서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 지배적이다. CNN방송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했다”며 “분명한 것은 양국 모두 현재까지는 가장 고조된 위협을 마무리짓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다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날부터 가자지구 남부 라파와 서안지구 톨람 등 하마스의 마지막 본거지들에 공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란과의 분쟁 최대 수혜자가 됐다”며 “그에 대한 지지율이 최대 37%까지 올라 주요 경쟁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의 차이가 5%포인트(p)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여전히 간츠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았다고 NYT는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 대표들을 21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슬로바키아, 몰타, 에콰도르 등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8일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찬성했지만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고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몰디브 총선…與 친중국 행보 시험대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21일(현지시간) 한 유권자(오른쪽)가 총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의 친중국 행보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이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을 인도로 하는 관례를 깨고 1월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제1야당인 몰디브민주당(MDP)은 친인도 성향으로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다.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21일(현지시간) 한 유권자(오른쪽)가 총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의 친중국 행보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이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을 인도로 하는 관례를 깨고 1월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제1야당인 몰디브민주당(MDP)은 친인도 성향으로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다.

말레/AFP연합뉴스

사면초가 테슬라… 머스크, 인도 방문도 연기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우려 커

엑손모빌에 1년 만에 시총 역전

미국선 사이버트럭 4000대 리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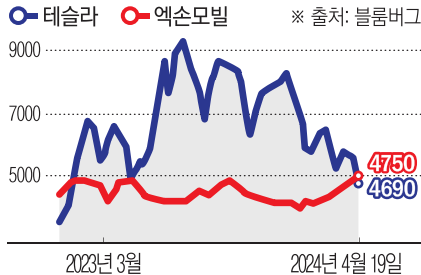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위기를 타개할 승부수로 띄웠던 인도 방문을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게도 테슬라에 대한 의무가 커 인도 방문이 연기됐다”며 “올해 말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1일부터 이틀간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 첫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우주강국 인도의 스타트업들과 회동해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진출과 협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테슬라 vs 엑손모빌 시가총액

(단위: 억달러, 현지시간 기준)



앞서 그는 작년 6월 미국을 방문한 모디와 회담 후 “인도 진출을 확신한다”고 언급했으며, 10일에도 “모디 총리와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방문 예정일 전날 이를 갑작스레 미룬다고 알린 것이다.

이번 인도 방문은 테슬라에 매우 중요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핵심 시장이었던 미국과 중국에서 성장세가 정체되자 그 대안으로 인도를 낙점해 진출을 준비해왔다. 인도에서 전날 총선이 시작된 가운데 머스크가 3선이 유력한 모디 총리와 만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테슬라

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커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연기한 이유는 테슬라가 사면초가에 몰렸기 때문이다. 각종 악재가 몰리며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40% 이상 하락했다. 그 결과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시가총액이 1년여 만에 추월당했다. 전날 종가 기준 테슬라의 시총은 약 4690억 달러(약 647조 원)로 엑손모빌의 4750억 달러를 밑돌았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23일 공개하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 15일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 둔화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약 4000대를 부품 결함으로 리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생산에 수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해 11월 30일에야 처음으로 주문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진영 기자 mint@

美, 950억弗 안보 예산안 통과

우크라·이스라엘·대만 등 지원

러 “군사 지원, 세계 위기 악화”

틱톡 매각 최대 1년 유예키로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총 950억 달러(약 131조 500억 원)를 지원하는 안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81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법안 3개를 가결했다. 이는 민주당 다수인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일주일 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한숨 돌리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정치적 문제로 추가 지원이 늦어지면서 탄약 부족 등으로 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올해 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하원의 극적인 지원안 타결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항전에서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부족한 탄약 지원은 법안 통과 후 1~

2주 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대미 사일과 대공포 배터리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일부 대형 장비 중 일부는 제작과 배송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 처리에 즉시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계획은 세계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으로 방공망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됐다. 로켓탄을 격추하는 대공방어 시스템 ‘아이언돔’과 단거리 로켓 등 위협에 대비하는 방공 시스템 ‘아이언뱀’ 등을 보장한다.

또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대 반대 58로 통과시켰다.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연장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44일간의 총선 막으론 인도, 내년 4위 경제국 전망

경제 혼풍…모디 총리 3연임 유력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지난주 무려 44일간의 총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3연임이 유력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나왔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인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조 3398억 달러(약 5984조 원)에 달해 일본(4조 3030억 달러)을 넘어서 세계 4위 경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군두박질치는 엔화 가치로 인도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 달러 기준 일본 경

제 규모가 작아지면서 일본의 순위 하락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은 독일에 GDP 3위 자리를 내줬다.

IMF는 2027년 인도가 독일도 제치고 GDP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는 이미 2022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일본을 추월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구 1위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는 올해 GDP 증가율이 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인당 명목 GDP는 중국의 5분의 1 수준인 2000달러 중반에 불과해 중산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아현 기자 cahyun@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세계의 암 전문가들과 만나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부디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암보호서비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작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글로벌암보호서비스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화생명의 제휴사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 진단 전, 중, 후에 걸쳐 고객님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할 때부터 앱을 통해 암 예방 관리를 도와주고 암 진단 시 담당 주치의에게 암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최신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며 암 치료 후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1588-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호서비스는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가입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약 시 암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제휴업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여야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5311호 (2023-11-14 ~ 2024-11-13)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3-11-039

www.hanwhalife.com



‘은행은 이래야 한다’ 고정관념 깬 혁신 리더

국내 4번째 여성 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국내외 은행 CFO 경험…지속가능한 혁신 기대
취임 후 임직원에게 ‘첫 연간 흑자 달성 원년’ 선언

국내 네 번째 여성 은행장이자 인터넷전문은행 첫 여성 은행장. 지난달 취임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지게 된 타이틀이다. 두꺼운 유리 천장을 깨고 모처럼 은행권에 새로운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왔다.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토스뱅크는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2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취임 후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2024년을 첫 연간 흑자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고 동시에 1000만 고객 은행으로서 고객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재무적 안정성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이 대표 취임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중 가장 늦게 출범

했지만, 출범 2년 7개월 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하며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 면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384억 원이었던 누적 순손실 규모가 하반기에는 연속 흑자로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75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손실 규모가 2022년(-2644억 원)보다 약 15분의 1로 축소되면서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10년이 넘게 국내·외 은행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재무통’으로 꼽히는 만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 대표도 토스뱅크의 재무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재무통으로서 이 대표의 능력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DGB대구은행의 CFO이자 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하면서 지난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주도하는 등 태스크포스팀(TFT) 공동 의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HSBC 홍콩 상업은행 CFO(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총괄), HSBC 서울 지점 부대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CFO 등을 맡으며 20여 개국의 다양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외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췄다.

이처럼 이 대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은행 CFO로서 갖춘 경험이 건전성, 리스크 관리, 성장에 대한 전략적인 기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공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영학, 회계학, 재무분석, 리스크 관리 등의 학위와 자격을 갖추고 있어 대표적인 ‘융합형 리더’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 대표 체제에서 토스뱅크는 기존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며 금융콘텐츠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이제 토스뱅크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최신 금융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요즘 금융 이슈’와 관련된 한층 높아진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정책·거시경제·부동산 등 9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금융·

경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큐레이션 콘텐츠도 새롭게 더했다. ‘토스뱅크 큐레이션’은 기관·미디어·UGC(소비가 직접 제작한 소통형 콘텐츠) 중 신뢰할 수 있는 금융콘텐츠를 토스뱅크가 직접 선별해 제공한다.

이 대표는 “토스뱅크와 1000만 고객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혁신과 포용, 고객들의 금융주권을 깊이 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고객 신뢰를 지켜갈 수 있도록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이며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약력

1973년 출생
1996년 서강대 컴퓨터공학 학사
1999년 이화여대 대학원 통역학 석사
2002년 삼일회계법인 금융부문 세무본부
2007년 스탠다드차타드 전략 이사대우
2011년 SC제일은행 재무관리부
2019년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CFO
2021년 HSBC 홍콩 상업은행 CFO
2023년 DGB대구은행 경영기획그룹장
2024년 토스뱅크 대표이사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늦게 출범한 ‘막내’다. 금융 산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가장 늦게 등장했지만 성장은 가팔랐다.

토스뱅크는 최근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10월 출범한 후 2년 7개월 만인데, 8초에 1명씩 토스뱅크를 찾는 셈이다.

성장은 혁신 서비스가 견인했다. 출범 이후 토스뱅크가 내놓은 혁신 상품은 35개에 달한다.

시중은행도 못한 무료 환전... 8초에 1명은 토스뱅크 열었다

2년 7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 돌파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등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대표적이다. 토스뱅크는 올해 1월 환전 수수료 무료를 내세운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출시했다. 출시 21일 만에 60만 좌를 돌파했고, 3개월 간 100만 좌를 돌파했다. 국내 최초로 외화를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

두 환전 수수료를 무료화한 외화서비스로 시중은행의 무료 환전 서비스 확산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내놓은 상품마다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범과 함께 내놓은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는 토스뱅크통장, 이듬해 내놓은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에는 월 단위로 제공되던 이

자를 고객 의사에 따라 일 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서비스는 이자에 대한 가치를 은행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자=나중에 받는 것’이라는 금융의 공식을 깬 토스뱅크식 혁신이었다.

낮은 금리를 대표하던 수시입출금통장은 고객들의 손쉬운 사용에 높은 금리가

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변화했다.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토스뱅크에서만 약 500만 고객이 3억 9000회 이용하며, 총 4682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

포용금융도 토스뱅크의 성장을 이끈 다른 한 축이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31.54%로, 제1금융권에서 가장 높다. 지난 2년간 중·저신용자에게 5조 1600억 원의 신용대출을 공급,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분묘개장공고(1차)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4-52 호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사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분묘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기 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38-1, 1130-5, 1130-6, 산214-4, 707-11, 1155-2, 산124-1, 산127, 산127-2, 산134-7	177기

■ 개장 대상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177기

■ 개장사유 :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지구 내 편입

■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 개장 후 안치장소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 납골당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45)

■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 년 04 월 22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글로벌 시장서 격돌하는 한중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삼국지’… 주도권 경쟁 사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상용화를 향한 전기차·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양산 시점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연합체 결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이어지며 국가 간 경쟁 구도로 변지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의 주요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앞다퉈 공개하고 있다.

일본 نيسان자동차는 최근 요코하마 공장에서 건설 중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시범생산) 라인을 공개했다. 내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2028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중국 광저우자동차그룹(GAC)는 2026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 가장 빠르다. GAC가 공개한 전고체배터리는 400Wh/kg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추고 1회 충전 시 주행가

삼성SDI, 2027년 양산 목표
中 광저우車, 2년 뒤 상업화
日 닛산·요코하마 4년뒤 생산
‘항화물계’ 삼성·도요타 우위
국가 연합체 구성·개발 지원도

능 거리가 1000km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각 회사의 출시 계획과는 별도로 업계는 도요타와 삼성SDI가 전기차용 전고체배터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본다. 두 기업은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다.

전고체배터리는 전해질 종류에 따라 폴리머계·산화물계·황화물계로 나뉜다. 황화물계는 폴리머·산화물계 대비 이온 전도도가 높아 전기차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삼성SDI는 지난달 900Wh/kg의 에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삼성SDI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전고체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첫 공개하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중대형전지사업부 내 ASB(전고체배터리) 사업화추진팀을 신설한 데 이어 연구소 내 개발 조직을 해당 팀으로

이동시켰다.

2027~2028년 중앙산 계획을 구체화한 도요타는 2010년 이후 1000여 건의 전고체배터리 관련 특허를 등록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화가 머지않은 가운데,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전고체배터리를 비롯해 리튬메탈·리튬황 배터리 등 3개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117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산·학·연 협력체인 ‘중국 전고체배터리 협력 혁신 플랫폼(CASIP)’을 설립했다. 2030년까지 전고체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CATL, BYD 등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본 정부는 3조 원이 넘는 배터리 관련 보조금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고체배터리는 시장 초기이고, 황화물계의 경우 원료인 황화리튬 가격이 리튬이온 배터리 원료 대비 매우 높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브라질〉

세계경제 지정학적 블록화… “한중일, GS 4개국서 공급망 재편 다툼”

지정학적 블록화가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사우스(GS)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블록화 시대, 글로벌 사우스 활용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방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Geopolitical)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역 분절화 및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방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우방국 교역 비중은

무협 ‘글로벌사우스 활용 전략’

54.6%에 달했다.

양지원 무협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구조적 축의 전환이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인도는 반도체·스타트업, 인도네시아는 무선통신기기·인프라, 멕시코는 기계류·자동차 및 부품, 브라질은 농산업·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우리의 수출·투자 기회가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 및 성

인도·인니서 中·日과 수출 경합
멕시코에선 日과 9개 품목 경쟁
브라질 시장점유율 5위→11위로
“반도체·車·농산물 등 기회 풍부”

장 잠재력 측면에서 GS 국가의 역할이 기대된다. 보고서는 특히 GS 76개국 중 G20 회원국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면서, 경제 규모가 큰 GS4(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브라질)에 주목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유망 생산 거점이자 성장잠재력을 지닌 거대 소비시장인 점도 부각된다.

인도와 브라질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해 세계 평균(4.0%)을 상회하고 있다. 멕시코는 대(對) 세계 수입의 53.2%가 중간재인 대표적 글로벌 생산기지다. 인도네시아 역시 2022년 총수입 2000억 달러를 돌파해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GS4 시장에서 한·중·일 간 경쟁 구도에 주목했다.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15대 품목 중 절반 이상에서 중국,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2015년 대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중국(2015년 0.310→2023년 0.662), 일본(2015년 0.421→2023년 0.563) 제품과의 수출 경합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산 반도체 점유율은 상승했다.

멕시코에서는 중국(0.472), 일본(0.537)과의 수출 경합이 GS4 중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 중 9개에서 일본과의 경합이 심화됐다.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5위(4.7%)에서 2023년 11위(2.0%)로 줄었다.

양 연구원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자 협력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등 경제 협력 채널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한화오션, 해군 무인 잠수정·수상정 개발 나선다

‘개념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무인잠수정과 무인수상정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Navy Sea GHOST)’를 향한 첫걸음이다. 네이비 시 고스트는 수상·수중·공중 등 전 영역에서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유·무인 전력을 통합 운용해 작전·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군은 현재 ‘국방혁신4.0’과 연계해 해양 전투력 우위 확보를 위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마텍스 2023 전시회’에 선보인 무인 잠수정 모습. 사진제공 한화오션

이번 사업은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얻은 결과로 계열사간 시너지와 함께 향후 미래 무인함정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국내 최초 대형 무인수상정 형상설계에 들어갔고 2022년부터 전투용 무인 잠수정 개념설계, 무인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초대형급 무인잠수정 체계기술 검증 시작품사업 등 미래 함정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에 개념설계에 들어가는 정찰용 무인 잠수정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작전 지역에 은밀하게 접근해 지속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함께 기동하는 모함(母艦)의 해상 정찰업무 영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기뢰전 무인 수상정도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게 될 무인 함정이다. 평시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기뢰 탐색 및 해체(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함정의 안전한 출입항로를 확보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는 결국 군 병력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오션은 무인 무기체계 기술로 흔들림 없는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고려아연, 호주 풍력발전소에 6700억 투자

지분 30% 확보… 내년 8월 가동

고려아연이 미래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낸다.

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 아크에너지의 계열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 (Ark Energy MacIntyre Pty Ltd)를 통해 호주에 건설 중인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의 지분 30%에 대해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발전소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악시오나(ACCIONA)의 자회사 악시오나에너지에서 개발 중이다. 퀸즐랜드주 워릭시 남서쪽에 소재하고 있다.

풍력터빈 162대를 설치하는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는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이 80%를 넘어섰다. 내

년 8월이면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는 호주 및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풍력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 투자 결정으로 아크에너지는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 923.4메가와트(MW)의 발전 용량 중 30%를 확보하게 됐다. 투자 금액은 7억5300만 호주달러(약 6700억 원) 규모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30%는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SMC)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전력량은 썬메탈의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21.8%(올해 예상 전력사용량 기준)에 달한다.

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의 실현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풍력발전소 투자는 고려아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외부로 판매되는 첫 사례다.

이동욱 기자 toto@

경기침체에 발목 잡힌 수입차 판매…올해도 후진하나

1분기 판매량 전년비 11.5%↓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수입차 시장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이 4년 만에 역성장한 가운데 올해에도 2년 연속 역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통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1~3월 국내 시장에서 5만458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1684대)보다 11.5%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 16.6%를 차지했던 수입차 점유율도 올해 같은 기간 14.2%로 감소했다.

2023년 -4.4% 4년만에 역성장

1~2월 점유율 16.6%서 14.2%

경제 불확실성에 고금리 부담

가격 비싼 수입차 수요 둔화

제네시스 등 국산차 대체재로

수입차 시장은 지난해부터 부진한 성적을 받아 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입차 등록 대수는 27만1034대로 2022년보다 4.4% 줄어 4년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10년대 들어 꾸준

히 연평균 1.5%포인트(p)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0년 6.92%에 불과했던 수입차 점유율은 2022년 19.69%로 1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10년 동안 수입차 시장이 감소세를 보였던 건 디젤 게이트 영향을 받은 2016년과 일본차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2019년뿐이다.

수입차 시장의 감소세가 올해에도 이어지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기존 수입차 업계의 왕좌를 지키던 업체들의 부진이 뚜렷하다. 2022년까지 7년 연속 수입차 1위를 지키던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8.3

% 감소한 1만720대를 판매하며 BMW, 테슬라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입차 업계 4위에 오른 볼보도 올해 1분기 24.6% 감소한 3007대를 판매했다. 5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독일 3사 가운데 하나인 아우디는 전년 대비 84.1% 줄어든 1100대 판매에 그치며 순위가 10위로 내려앉았다.

수입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국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할부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갑을 닫는 원인이다.

국내 브랜드의 높아진 품질도 수입차 부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대체재로 부상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1분기 국내 시장에서 전년 대비 9.69% 늘어난 3만3770대를 판매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시스를 비롯한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의 품질이 수입차 못지않게 올라갔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많이 줄어든 데다가 고금리도 지속하면서 당분간은 수입차 업계가 부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초과급여 포함〉

근로자 평균연봉 사상 첫 5000만원 넘었다

경총 ‘2023년 사업체 임금 분석’ 년인상률 2.8% 전년비 2.4%p↓ 금융·보험업종 8722만원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 임금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650만 원) 대비 131만 원(2.8%) 오른 금액이다.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 임금총액은 5053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임금총액 인상률(2.8%)은 2022년 5.2%에 비해 2.4%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지난해 2.9%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특별급여액(648만 원)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2년(667만 원)에 비해 하락했다.

분석 기간을 최근 3년(2021~2023년)으로 확장하면 특별급여의 누적 인상률은 22.4%로 정액급여 11.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업종별 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이 8722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02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업종 간 격차는 5693만 원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연 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은 0.1%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

은 4296만 원(전년 대비 2.6%↑), 300인 이상은 6968만 원(전년 대비 2.4%↑)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7’로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0년 64.2에서 2023년 61.7로 하락했다. 다만, 2022년(61.5)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는 2021~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 특별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대기업 임금 안정과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LG이노텍 ‘연속줌 카메라’, 에디슨 어워즈 수상

美최고 발명상… ‘상용기술’ 은상

LG이노텍이 스마트폰용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이하 광학식 연속줌 모듈)’로 올해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에디슨의 혁신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으로, ‘혁신의 오스카상’으로도 불린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드에서 18일(현지 시각) 열린 시상식에서 LG이노텍이 출품한 광학식 연속줌 모듈은 ‘상용기술’ 분야 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광학식 줌은 렌즈를 직접 움직여 피사체를 확대해 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술로는 특정 배율에서만 작동하는 고정줌 모듈을 여러 개 장착해야, 광학식 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고정줌 모듈을 탑재할 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 DSLR 카메라 등 크기가 큰 전문 카메라 위주로 광학식 줌



LG이노텍의 스마트폰용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
사진제공 LG이노텍

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21년 LG이노텍이 광학식 연속줌 모듈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으로 DSLR 카메라급 고화질 광학식 촬영이 가능해졌다. LG이노텍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상용화했다.

노승원 LG이노텍 전무는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에버랜드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 Photo(포토)’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사진). 에버랜드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서 팬 큐레이터가 방문객들에게 ‘갤럭시 S24’의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나비를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에버랜드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서 팬 큐레이터가 방문객들에게 ‘갤럭시 S24’의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에버랜드에 삼성 갤럭시 AI 체험 ‘스튜디오 포토’

1020세대 맞춤…내달 26일까지 ‘갤S24 시리즈’ 대여 서비스 진행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의 강력한 ‘갤럭시 AI’ 기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를 에버랜드에서 다음달 26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는 이색적인 사

진 체험부터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까지 102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테마파크 콘셉트로 마련된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우산, 꽃, 비누방울 등의 소품과 함께 갤럭시 S24로 사진 촬영 후, ‘갤럭시 AI’의 ‘생성형 편집’을 활용해 신비로운 분위기의 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갤럭시 포토 박스가 설치된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서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나비와 꽃을 쉽고 빠르게 검색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에버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갤럭시 AI’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에버랜드 내 포토 스팟에서 인증 시 삼성워렛으로 모바일 쿠폰을 증명한다.

삼성워렛에 에버랜드 티켓, 멤버십 등을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낵 교환권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HD한국조선해양, 협력사 탄소중립 지원

동서발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HD한국조선해양이 협력사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한국동서발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조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은 중소기업탄소중립지원사업과 연계해 조선소 중소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 공기압축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사업장 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비 1대 교체 시 연간 약 30~6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동서발전과 함께 HD현대 조선 부문(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상호)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강석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명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조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HD한국조선해양

설비교체 및 유지·보수 활동을 지원한다.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 조직을 두기 어려운 중소 협력사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도울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사업 지원 대상을 1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ESG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된 지 이미 오래”라며 “이번 협력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스마트기기 충전함’ 국내 1위 … “에듀테크 SI기업 도약”

탐방기UP 에스아이지

스마트 에듀테크 SI기업

“스마트스쿨 시장 장악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서 디지털 에듀테크 AI 기업으로 변화할 겁니다.”

21일 이희규 에스아이지(SAiG) 대표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스마트단말 사물인터넷(IoT) 충전보관함인 싱크프로는 전국 약 8000개 이상의 학교에 보급해 명실공히 이 분야 선두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업 6년 차의 스타트업 에스아이지는 스마트단말 사용이 증가하는 시장에 따라 스마트 공유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에스아이지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코레일 역사로, 스마트폰 충전 및 보조배터리 대여 시스템인 모바일타워가 있다. 현재 약 150여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역에서 보조배터리를 대여해 부산역에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사업 영역을 넓혀 전 세계로의 확장을 꿈꾼다.

스마트폰 충전·보조배터리 대여 코레일 역사 150곳에 ‘모바일타워’ 8000개 학교엔 IoT충전 ‘싱크프로’ AI가변충전, 전력수급 문제 해결 일본 등 글로벌 진출에도 적극적

그는 “세계적인 AI 회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AI 사업 분야의 매출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단말 IoT 충전보관함이 각 교실의 약 30대 이상 다수의 스마트단말을 관리하고 보관, 충전하는데 교사들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음에 착안해 2014년 충전보관함을 개발했지만, 판매까지는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에스아이지를 창업하면서 스마트스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미래 학교는 반드시 스마트스쿨로 간다는 확신으로, 다시 스마트단말 충전보관함을 개발하고 제조를 시작했다. 이 이상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규모로 자리 잡게 됐다



이희규 에스아이지 대표가 2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본사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싱크프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한다.

이 대표는 제품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싱크프로 제품은 타사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IoT 기능을 접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보관함을 제어할 수 있다”라며 “단말기 충전 상태와 내부 온도 측정 기능, 앱을 통한 도어 오픈 기능을 가지고, 특히 에너지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와 이용에 편리하게 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학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인 학교에서는 재구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에스아이지는 학교 교실에서 각종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극복한 제품을 내놔다.

에컨대 노트북과 같이 대용량 배터리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고속충전 기능이 필수적이지만, 1인 1단말기 보급에 따라 한 교실에 약 30대 이상의 단말기를 동시에 고속충전을 하게 되면 오래된 학교의 경우 전력문제로 분전반이 멈추는 현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증설 공사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 밖에도 전기 쇼트로 인한 발화 문제, 충전

장치의 과전류·과전압 차단장치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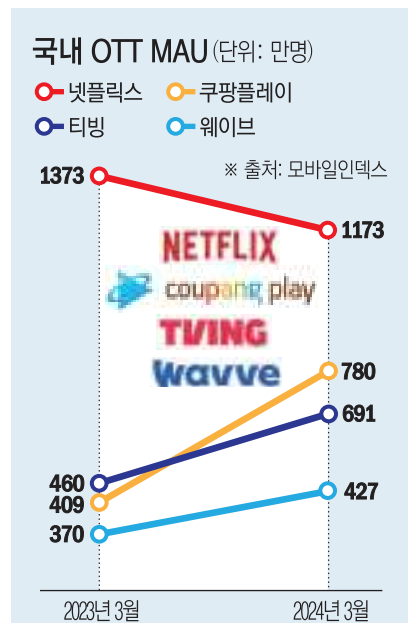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AI 충전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라며 “이미 특허로 등록된 AI 가변충전 기술은 다수의 단말기를 전기 용량에 따라 분배해 그룹별로 여러 번에 나눠 충전, 학교의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분전반 다운 현상과 화재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은 일부 현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스마트기기 충전 중 배터리 폭발 사고를 대비해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지침이 생겼다”라며 “우리가 개발한 AI 가변충전 기능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반 충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현재 일본 수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충전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해외 시장 개척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스마트스쿨 사업은 해외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있다”라며 “저희는 2년 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가, 해외 인증 취득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해외 사업시장 전망은 더 밝게 본다”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넷플릭스 주춤한 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토종 OTT



국내 OTT 지난해 실적 (단위: 억원)

	영업이익	매출
넷플릭스	121	8233
티빙	-1420	3264
웨이브	-791	2479
왓차	-221	430

※ 출처: 각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주름잡던 넷플릭스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반면 티빙, 쿠팡플레이 등 국내 토종 OTT들이 약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 1위(넷플릭스)와 타 OTT의 이용자 수 격차가 큰 만큼, 넷플릭스는 흑자를 내는 반면 국내 OTT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173만여 명으로 전 달보다 6.3%(약 79만 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넷플릭스의 MAU가 1200만 명을 밑도는 것도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넷플릭스 MAU는 1373만 명에서 1173만 명으로 200만 명 줄어 들었다.

계정 공유 금지 정책에 더해 과거 대

쿠팡플레이, 3월 MAU ‘역대 최대’ 티빙도 691만명, 1년새 231만 ↑ 스포츠중계 효과에 가입 콘복 증가

계정 공유 금지·킬러 콘텐츠 부재 넷플릭스는 -6.3%, 3개월째 감소

비 넷플릭스 콘텐츠 인기가 부진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드라마 ‘살인자o난감’, 영화 ‘황야’, 예능 ‘피지컬: 100’ 시즌2 등은 넷플릭스 톱10 비영여권 TV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 등에 준하는 반응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반면 국내 OTT들은 올해 이용자 확보에 선방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앱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78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티빙은 같은 기간 MAU 691만 명을 기록했다.

쿠팡플레이와 티빙의 약진에는 스포츠 중계 효과가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쿠팡플레이와 티빙의 이용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의 멤버십 비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한 번에 58% 인상했으며, 티빙은 KBO를 이달까지만 무료 중계하고 다음 달부터 유료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종 OTT들이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넷플릭스만 국내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의 한국 법인)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은 8233억 원, 영업이익은 121억 원이다.

반면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420억 원, 791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매출은 각각 3264억 원, 2479억 원을 기록했다. 왓차의 지난해 매출은 430억 원에 그쳤다. 티빙, 웨이브, 왓차 등 토종 OTT 3곳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손실은 2432억 원에 이른다. 쿠팡플레이와 디즈니플러스는 별도로 국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OTT 중 넷플릭스만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최초로 사내 ‘영어 이름’ 없앤다

카카오게임즈가 사내 영어 이름 사용을 없앤다.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는 첫 시도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상우 카카오 게임즈 신임대표는 지난 17일 타운홀미팅에서 영어 이름 대신 한글 본명에 ‘님’을 붙여서 호칭을 부르는 방식을 이달 중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한 대표를 부를 때는 기존 한 대표의 영어 이름 ‘마이클’ 대신 ‘상우님’하는 식이다.

카카오는 수평 문화 정착을 위해 그간 직장 내에서 영어 이름으로 호칭해왔다. 이에 카카오 직원들은 김범수 창업자를 ‘브라이언’으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시나’로 부르며 소통해왔다.

그러나 사내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회

한글실명에 ‘님’ 호칭, 이달 중 도입 이중 호칭으로 인한 업무 혼선 해소 팀장 직급 없애고 팀원 보상제 도입

사 밖에서는 한글 이름으로 소통하는 이중 호칭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회사 안팎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대표도 영어 이름 사용 중단 배경으로 이러한 혼선을 지목했다. 카카오게임즈가 계열사 중 처음으로 영어 이름 사용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번 결정이 다른 카카오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를 카카오게임즈가 규모에 비해 팀이 너무 많은 점을 언급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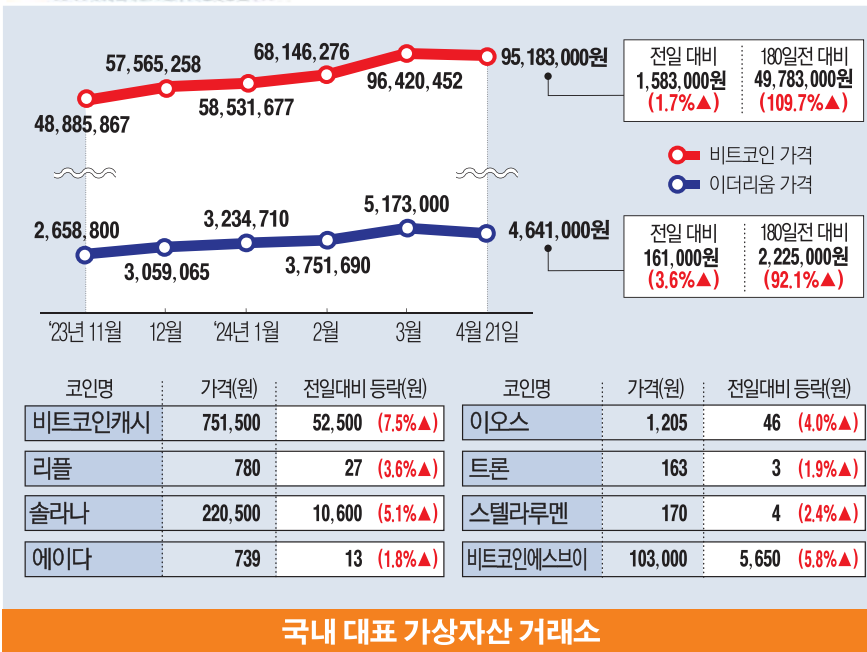
팀장 직급을 없애 팀원이 실장급과 바로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직원 480여 명 중 110여 명이 팀장급 이상이다. 팀 단위로 나누어 일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도록 해 각종 프로젝트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직급을 간소화하는 대신 팀원이 승진하지 않아도 성과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로스 스테이지(Growth Stage)’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스 스테이지는 팀원의 보상 체계를 8~9개 성장 단계로 나누고, 각자 단계 등락에 따라 보상 규모가 차별화되는 구조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4월 21일 17:00, KST)



“발달장애아 부모에 치료법 코칭… 7년내 업계 최고 될 것”

〈유아동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메디컬 줌인

송미영 두부 사업총괄 이사

“국내의 아동 발달지연·장애 분야에서 두부팡, 두부홈즈, 디키트(D-kit) 등 두부의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7년 내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미영<사진> 두부 사업총괄 이사는 최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발달지연·장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부는 2017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한다. 지난해 21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2월 발달지연·장애 아이 양육자를 코칭하는 두부홈즈를 출시했다. 두부홈즈는 삼성전지에서 18년간 근무한 송 이사가 2021년 입사해 개발했다. 이는 전문 치료사가 발달지연·장애 아이를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닌 부모를 코칭해 아이를 교육하는 시스템이다.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 치료사가 아이의 영상이나 검사지를 보고 부모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친다.

송 이사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말과 배변을 못 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두부는 인지기

양육 방법 전수 ‘두부홈즈’ 출시
치료사, 아이 영상·검사지 확인
매주 한번 온라인서 부모 교육

“양육자들, 누군가의 도움 필요
심리적 부담 덜어주고 싶어”

능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선 집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아이와 시간을 오래 보내는 부모를 훈련 시키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두부홈즈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발달지연은 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해당 나이에 이뤄져야 할 말이나 행동이 평균 기대 연령보다 늦다. 발달장애는 발달지연을 포함하는 질환 또는 장애를 말하며 주의력결핍장애, 학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다. 보통 발달지연과 장애는 병원이나 센터에서 솔루션을 받는다.

두부홈즈는 전문 치료사가 오프라인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부모를 코칭해 아이를 교육하는 온라인 기반 시스템이다. 부모는 매주 한 번 온라인으로 치료사를 만나 교육받고 일주일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기본 커리큘럼은 12주다. 송 이사는 “두부홈즈는 부모 실행 중재 근거 기반 치료법 중 하나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교육하는 것



송미영 두부 사업총괄 이사가 최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두부팡, 두부홈즈, 디키트(D-kit) 등 두부의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7년 내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두부

이 기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성이 있다. 부모가 매일 아이를 돌보고 환경을 컨트롤 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두부는 두부홈즈 외에도 영유아 인지 개선 앱 두부팡과 영유아 발달지연·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디키트(D-kit)를 개발 중이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

어 서비스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디키트는 두부팡과 비슷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아이들이 대상이고 난이도도 쉽다. 현재 탐색 임상을 진행 중이다. 송 이사는 “두부팡에서 얻은 아이의 인지 발달 데이터를 두부홈즈에 활용할 수 있고, 두부홈즈도 두부팡을 통해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교육 목표 설정과 맞춤형 중재법을 제공할 수 있다”며 “두부팡과 두부홈즈의 상호보완 작용으로 아이의 성장을 끌어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부는 기술력과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다. 송 이사는 “수면, 식이장애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투자는 활발한데 아동 발달지연·장애 시장에는 확실한 플레이어가 없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7년 안에 유아동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발달지연·장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송 이사는 “부모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하면 충격도 받고 자책도 한다.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두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심리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100년 넘게 사랑받은 ‘활명수’ 유행 맞춰 젊은세대 공략 속도

장수의약품을 찾아서 ①

출시 127주년… 시장점유율 70%
90억병 판매·작년 매출 792.7억

2022년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열린 활명수 탄생 125주년 기념 ‘활명수 1897’ 팝업스토어에는 23일간 총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 동화약품은 최근 유행에 맞춰 팝업스토어, SNS채널 운영 등 젊은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화약품은 100년이 넘는 역사의 활명수로 모든 세대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핵심은 협업이다. 2013년부터 아티스트나 브랜드 등과 합심해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스탠리(STANLEY)’, 패션브랜드 ‘게스(GUESS)’,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문구기업 ‘모나미’ 등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젊은 세대에 어필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시했던 활명수 기념판의 판매수익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하며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힘쓰는 이른바 ‘착한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1897년 궁중 선전관 민병호 선생이 국내 최초 양약 ‘활명수’를 개발한 것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 선생은 아들 민강 선생과 함께 활명수 대중화를 위해 동화약방(현재 동화약품)을 창업했다. 당시 서민은 급제, 토사관관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는데 활명수는 그 의미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물’(살림 活, 생명 命, 물 水)’로 불리며 만병 통치약대접을 받았다.

현재 동화약품은 일반의약품인 활명수, 가스활명수, 꼬마활명수, 활명수-유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스활(活), 미인활(活) 등 6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가스활명수’는 1967년 활명수에 탄산을 첨가해 청량감을 보강한 액제소화제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1991년 브랜드리뉴얼을 통해 ‘가스활명수-큐’를 발매했다. ‘꼬마활명수’는 만 5세에서 7세를 위한 어린이용 소화정장제로, 스틱형 파우치 포장과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을 적용했다. 2012년 출시한 편의점 상비약 가스활(活)과 2017년 상큼한 맛을 더한 미인활(活)을 출시했다.

활명수는 올해 출시 127주년이다. 활명수 브랜드는 액제소화제 매출 1위로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90억 병이 판매됐다. 이는 활명수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지구를 스물다섯 바퀴나 돌 수 있고, 전 세계 81억 명이 한 병씩 마시고도 남는 수량이다. 활명수 브랜드는 지난해 792억 70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성장 중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부작용 잡고 복용 쉽게… 조현병 치료제의 진화

국내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차세대 조현병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작용과 낮은 복약순응도 등 기존 약물의 한계점을 극복한 신약에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 조현병 치료제 차세대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통해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글로벌 제약사브리스톨-마이어스스콧(BMS)과 국내 기업 CMG제약이 주인공으로, 각각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 막바지 단계다.

BMS는 체중 증가 부작용을 없앤 ‘카엑스티’(성분명 자노멜린·트로스피움)의 임상 3상을 마쳤다. 지난해 9월 FDA에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9월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카엑스티는 조현병과 알츠하이머병 관련 정신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무스카린 수용체’ 작용제다.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수, 침 분비, 동공 확대 등에 관여하는 무스카린 수용체 작용에 영향을 미쳐 조현병 양성·음성 증상과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원리다. 개발사는 카루나 테라퓨틱스로 BMS는 지난해 이 회사를 140억 달러(18조 9300억 원)에 인수해 카엑스티를 확보했다.

카엑스티는 기존 정신질환 약물의 부작용이 없던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BMS가 지난달 발표한 임상결과, 110명의 환자 대상 시험에서 44주에 환자 80%가 증상이 호전됐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가벼운 증상 외 치명적인

	조현병 치료제 신약 개발	
	BMS	CMG제약
물질	카엑스티 (성분명 자노멜린·트로스피움)	데핌조 (성분명 아리피프라졸)
기전	무스카린 수용체 작용제	도파민·세로토닌 조절
개발 단계	FDA 허가 심사 중	연내 FDA 허가 신청 계획
특징	체중 증가 부작용 감소	구강 용해 필름(ODF) 제형 적용

※ 출처: 각사

BMS ‘카엑스티’ 임상 3상 마쳐
체중 증가 부작용 감소…심사중

CMG제약 필름제형 ‘데핌조’
올 8월 FDA 개량신약 신청 예정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체중 증가 부작용이 없었고 오히려 52주에 걸친 치료 기간에 평균 2.6kg의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

국내에선 CMG제약이 구강용해필름(ODF) 제형의 ‘데핌조(성분명 아리피프라졸)’에 대해 올해 8월 내 FDA에 개량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데핌조는 오트카제약이 개발한 알약 형태의 경구투여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를 필름제형으로 개발한 최초 사례다. 아빌리파이는 2014년 물집특허, 2022년 용도특허만으로 국내 외에서 제네릭의약품이 다수 출시됐다. ODF 제형은 물 없이 환자에게 약품을 경구투여할 수 있다. 필름이 입속에 닿으면 녹아내려, 환자가 약을 삼

키지 않고 숨기거나 뱉는 등의 행동도 불가능하다. 알약보다 보관과 소지가 쉽다는 점도 특징이다.

CMG제약은 2019년 12월 FDA에 데핌조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차질을 겪었다. 당시 데핌조 원료 생산 기업 헤테로가 제조한 고형압약에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불순물이 발견되서다. 데핌조는 불순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동일한 공장에서 원료를 생산했던 이유로 보완 지시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현장 실사와 심사가 지연됐다. 이후 작년 9월 FDA는 헤테로의 공장 실사를 통해 불순물이 슈가해소됐음을 확인했고, CMG제약도 올해 품목허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조현병 치료제 시장도 성장세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조현병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81억 달러(11조 원) 규모로 파악됐고, 2026년엔 약 117억 달러(16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주 기자 hsj@

kt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하이오더

- ✓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안정적인 네트워크 · 전국 직영 A/S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상품문의 1588-0114

롯데몰→타임빌라스 변신… 김상현式 차별화 전략 시동

‘롯데몰 수원’ 브랜드명 변경
2026년 대구서도 출점 예정
‘시간도 머물고 싶다’ 뜻 담겨
신세계 스타필드 수원과 경쟁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왼쪽), 롯데몰 수원 전경(오른쪽)

롯데쇼핑이 복합쇼핑몰 롯데몰을 ‘타임빌라스’로 바꾸는 리브랜딩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롯데몰 수원을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대구시에 문을 열 복합쇼핑몰 간판도 타임빌라스로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랜드마크 확대’를 공언해온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이 차별화 전략의 액셀을 밟는 모습이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달 타임빌라스(TIME VILLAS)를 신규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 적용 지정상품에는 쇼핑몰 공간 임대업, 쇼핑몰 관련 부동산 관리업, 대형할인마트업 등이 포함됐다. 타임빌라스는 시간(Time)과 별장(Villas)의 합성어로, ‘시간도 머물고 싶

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롯데쇼핑은 2021년 9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처음 타임빌라스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달 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대신 ‘의왕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프리미엄아울렛 점포명은 지역 중심으로 통일감을 주고, 복합쇼핑몰의 세련된 리브랜딩을 위해서다. 신규 브랜드의 인지도 확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기존에 쓰던 타임빌라스를 복합쇼핑몰로 전

환해 쓰기로 한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수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 점포와 신규 출점 복합쇼핑몰 명칭을 타임빌라스로 통일할 계획이다. 2026년 9월 대구 수성구에 개점하는 롯데 복합쇼핑몰도 타임빌라스 수성으로 정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몰 수원을 타임빌라스로 바꾸되, 시점은 현재 미정이고 타임빌라스로 변경하는 점포의 대상과 구체적 시점도 알 수 없다”면서도 “기

존점보다 새 콘셉트를 적용하는 몰에(타임빌라스)를 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몰 수원원의 타임빌라스 변경 시점은 수원점 리뉴얼 완료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개점한 롯데몰 수원은 현재 브랜드 리뉴얼이 한창이다. 오픈 후 10년이 지난 만큼 무신사스탠다드, 나이키라이즈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입점 점포(테넌트)를 빠르게 유치하고 있다. 롯데몰 수원의 1030세대 고객 비율은 롯데백화

점 전 점포 평균 대비 약 10%포인트 높다. 젊은 고객 선호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키고 점포명도 타임빌라스로 리뉴얼한 뒤, 복합쇼핑몰을 즐겨 찾는 여름성수기를 대비하는 동시에 신세계 스타필드 수원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 쇼핑몰 간 거리는 약 2km로, 양사의 젊은 소비자층 모시기 경쟁은 올 여름이 최고조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롯데몰의 타임빌라스 전환에 대해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의 외형성장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올해부터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2.0을 추진하겠다”면서 “(롯데몰까지) 관할하는) 백화점사업부는 핵심점포 중심의 리뉴얼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롯데몰 수원점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장기적으로 각 지역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쇼핑몰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초여름 더위, 우리한테 맡겨라” 롯데 vs 빙그레 ‘빙과류 빅매치’

올 이른 더위 탓에 빙과류 매출 급증
‘점유율 1위’ 롯데, 제로 라인업 확대
빙그레, 장수브랜드 ‘투게더’로 맞불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빙과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빙과 업계 양대산맥인 롯데월드푸드가 시장점유율 1위, 제로 라인업 확대 빙그레, 장수브랜드 ‘투게더’로 맞불

주력 제품을 앞세워 빙과시장 주도권 경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빙과시장은 롯데월드푸드가 시장점유율 39.86%를 기록해 가까스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 롯데월드푸드가 40%대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우위를 점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합산 점유율은 39.85%로, 롯데월드푸드와 0.01%p까지 격차를 좁힌 상태다.

롯데월드푸드는 제로 브랜드 라인업 확대를 통해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월드푸드는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기조를 바탕으로 제로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제품군을 4종에서 7종으로 늘렸다. 최근엔 국내 빙과 업계 최초로 열량이 제로인 아이스크림도 내놔다. 새롭게 출시된 죠스바·스크류바는 롯데월드푸드의 대표 빙과 브랜드로, 설탕 대신 대체 천연감미료인 알룰로스 등을 활용한 제품이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는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폴라로’를 제로 슈거로 만들어 맛볼을 놓는다. 동시에 시모나바밤바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배우 박기웅을 앞세운 광고 캠페인도 공개했다. 빙그레는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장수브랜드 ‘투게더’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투게더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를 접목한 ‘투게더맛 우유’를 선보였으며, 25일에는 서울 성수동에 ‘투게더 50주년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빙그레가 투게더 전용 팝업스토어를 여는 것은 2019년 ‘투게더 피크닉 하우스’ 이후 5년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른 더위로 빙과류 매출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스카이런’ 1만명 돌파

롯데월드산은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직마라톤 대회 ‘2024 스카이런(SKY RUN)’에 역대 가장 많은 2200여 명이 참가, 누적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 롯데월드산

아워홈 갈등 재점화… ‘퇴출’ 구지은, 우군 확보 나서나

지분 19% 미현씨 ‘키맨’이지만
사모펀드와 손잡을 가능성 커

식품종합기업 아워홈 오너 일가의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경영권 항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너 일가 장남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장녀 구미현 씨와 손잡고 구지은 현 부회장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남매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구 부회장이 이끌 어온 아워홈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최근 연 주주총회에서 구지은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부결했다. 장녀 미현 씨가 최대주주인 장남 구 전 부회장의 편을 들면서 구 부회장은 경영권 박탈 위기다. 구 부회장의 대표이사 임기는 6월까지로, 그 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아워홈은 창업주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 중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38.56%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장녀 구미현(19.28%), 차녀 구명진(19.60%), 삼녀 구지은(20.67%) 세 자매가 힘을 합치면 그를 견제할 수 있다. 4남매 중 장남(구본성)

과 삼녀(구지은)는 그동안 경영권을 놓고 2017년부터 갈등을 벌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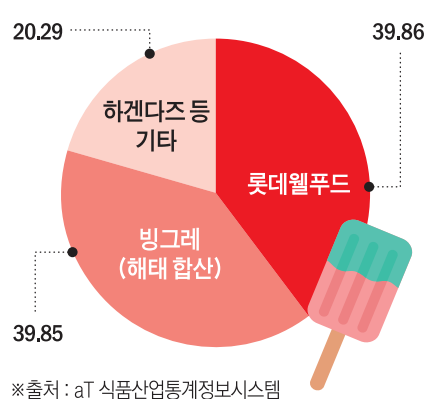
이번 경영권 분쟁의 ‘키맨’은 미현 씨다. 차녀 명진 씨와 구 부회장과의 연합전은 견고한 편이나, 미현 씨는 그간 오빠와 막내동생의 손을 들었다 뺐다는 반복했다. 미현 씨는 전업주부로, 경영보다 지분 매각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 부회장이 책임경영을 위해 ‘무배당’을 결정하자, 수백억 원대 배당금 수입을 잃게 된 미현 씨가 장남 편을 든 것으로 보인다. 구 부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려면

미현 씨를 설득해 포섭하거나, 사모펀드 등 우호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미현 씨보다 사모펀드와 손을 잡는 게 더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구 부회장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아워홈을 경영해왔다. 특히 연결 기준 아워홈의 지난해 실적은 역대 최대였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8.1% 증가한 1조9835억 원, 영업이익은 75.7% 늘어난 943억 원이었다. 남매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런 성장세에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지영 기자 kjj42@

2023년 빙과업계 소매점 시장 점유율
(단위 : %)



※출처 : 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 25의 이달(4월1~16일) 아이스크림 매출이 62.8% 늘었다. 같은 기간 편의점 CU에서도 아이스크림 매출이 40.0% 증가율을 보였다. 이달 들어 낮 기온이 섭씨 20도 중반을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면서 아이스크림 상품 구매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빙과 관련 매출이 급증하자 빙과업계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찍이 마케팅에 돌입했다. 지난해 롯데월드푸드와 빙그레의 점유율이 0.01%p 차이에 그친 만큼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33년 ‘현장통’… 원팀·소통으로 변화 이끌어



유리천장 뚫은 여성 금융리더

③ 김덕순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장

하나은행은 지난해 초 영업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함영주하나금융그룹 회장의 ‘1등 DNA’ 주문에 따라 공격적인 영업에 방점을 두겠다는 포석이었다. 영업 조직을 총괄하는 임원들도 탁월한 세일즈 실력과 직원과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재’들로 채워졌다. 지난해 하나은행이 리딩뱅크 자리에 오른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김덕순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장도 지난해 1월 인사 개편에서 서울 지역 북부를 책임질 리더로 발탁됐다. 북부영업본부는 서울 강북 전지역(동대문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경기도 구리·포천·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로, 지점 30개와 출장소 4개로 이뤄진 큰 조직이다.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한 뒤 33년 동안 일선 지점과 본부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통’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믿음·신뢰 형성
북부 지점 돌며 소직원에게 깜짝선물
북부영업본부 실적 눈에 띄게 증가**

남성들의 주 무대였던 영업 현장에 속속 여성 리더가 등장하는 등 금융권의 유리천장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는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행할 당시 여행원 제도는 있었지만, 일부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사라진 시대였다”라면서 “다만, 여신 업무는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은 근무 여건 등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공백은 김 본부장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터.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이 끝나기 3개월 전, 미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복귀 이후 도움이 됐다고



김덕순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장 프로필

1992년 6월 하나은행 인천지점 행원	2002년 1월 강서지점 대리	2005년 1월 등촌2동지점 PB	2010년 1월 부평지점 VIP PB	2017년 9월 인천지점 마케팅부장 [관리자 승진]
2023년 1월 북부영업본부 지역대표(본부장) [본부장 신규 선임]	2022년 1월 수유역금융센터지점 콜라보장	2021년 1월 부천지점 Hub장	2019년 1월 낙성대역지점 지점장	

김덕순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장이 서울 강북구 하나은행 북부영업본부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했다. 김 본부장은 “복귀 전에 영업점 분위기나 전산시스템을 미리 익히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면서 “복귀할 때도 인근에 있는 영업점을 1순위로 보내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준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대표적인 ‘남초집단’으로 꼽히는 은행권에서 여성 리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는 ‘원 팀과 소통의 리더십’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 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니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북부본부에 있는 630명의 직원 모두에게 지점을 돌면서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소소하지만 영화티켓, 과자 선물세트 등 선물을 모든 구성원에게 보낸다”면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다. 노력을 인정해주고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의 ‘원 팀 지론’은 성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이 선임된 후 북부영업본부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북부영업본부의 실적은 2022년 말 대비 △예금 12.6% △기업여신 12.7% △퇴직연금 27.6% 증가했다.

영업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점포에 필요한 것들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의 건의로 북부에 있는 센터에는 개별 마이크가 설치됐다. 조만간 행원의 말이 자막으로 나오는 전광판도 배치된다. 그는 “고객 연령대가 높은 북부 지역의 경우 온종일 고객 상담을 마치면 창구에 배치된 직원들의 목이 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행원들의 성대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점포에 시스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리더가 가진 강점으로는 배려심과 섬세함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한 점을 캐치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다”면서 “일할 때도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칭찬해줘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하나금융의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웨이브스’ 1기다. 그는 “성향 테스트를 통해 강점과 보완점을 찾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 “업무를 할 때 자기

**여성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1기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당부
“올해 직원들 더 행복하게 해주고파”**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점도 알게 됐다. 지금도 그때 작성했던 결과지를 가지고 다닌다”며 웃었다.

김 본부장은 후배들에게 은행이나 그룹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하나 웨이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 있어 관심을 두고 신청하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듣는 등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커리어를 키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는 직원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원팀으로 움직였지만, 올해는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싶다는 것. 김 본부장은 “지난해는 올해의 성과를 위해 업체 300곳을 돌아다녔다”면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다른 본부보다 많이 주고 싶다”고 피력했다. 손희정 기자 sonhji220@

세제혜택 확대… 커지는 기대감

ISA 가입자 수 500만명 ‘돌파’ 개정안은 공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수가 약 3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나며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 4029억 원에서 25조 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한 계좌당 평균 가입 금액은 330만 원에서 496만 원으로 50.3% 늘었다. 3년 전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들이 대폭 증가했다. 운용 범위가 단순 예금 위주에서 주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계좌다. 중개형은 기존의 신탁형과 달리 국내 상장 주식까지 투자 범위가 넓다. 상장 지수펀드(ETF)는 물론 기존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도 크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에도 기존 15.4%가 아닌 9.9%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ISA의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1월 ISA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000만 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서민형 기준 10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493만 명이었던 ISA 가입자가 두 달 새 20만 명 넘게 증가한 배경이다. 제도 개편으로 연간 4000만 원을 3년 납입한 가입자를 연 4%의 수익률을 본다고 가정하면, 기존과 비교해서 세제 혜택을 기존보다 최대 2.2배(56만 8000원)를 더 볼 수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

위기의 테슬라… 주식도 ELS도 ‘개미 공포’ 커진다

**주가 15개월만에 150달러 밑으로
시총 645.8조… 美 17위로 밀려
ELS 발행액 선방에도 손실 우려**

하락을 거듭하는 테슬라 주가에 주식과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2% 내린 147.05달러에 마감했다.

전일장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15개월 만에 15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6거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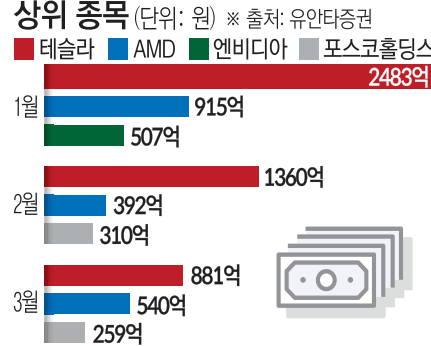
연속 하락했다. 이로써 테슬라 시가총액은 4683억 달러(약 645조 7900억 원)까지 쪼그라들며 미국 시총 상위 17위로 밀렸다.

연초 이후 약 40% 급락한 테슬라 주가에 투자자들 공포감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내 투자자 테슬라 보관금액은 89억 7451만 달러(약 12조 4000억 원)로,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 가장 많다. 연초 이후 순매수액도 110억 4268억 달러(약 15조 2000억 원)로 최대 규모다.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낙인(Knock-in) 불안도 이어지고 있

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테슬라 기초자산 ELS 발행 규모는 472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 발행액인 5074억 원과 비교해 6.89% 줄었지만, 국내 주식형·혼합형 ELS에서 기초자산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목이라는 입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전체 ELS 발행 금액이 8조 902억 원으로 작전 분기 대비 73.9% 각각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ELS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ELS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올해 1분기 월별 ELS 기초자산



올해 1월 발행된 ‘NH투자증권23005’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237.49달러) 75~70% 이상이면 조기상환 된다. 다만, 기초자산 만기 평가금액이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중가 기준으로 최초 기준가격의

35% 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테슬라 주가를 향한 월가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을 분석하는 전체 애널리스트 중 35%만이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S&P500 지수를 포함한 기업의 평균 매수 등급 비율은 약 55%였다. 테슬라 목표주가 평균치는 약 190달러로, 연초 약 241달러에서 21%가량 떨어졌다.

김광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는 1분기 판매량 쇼크로 인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판매량과 실적보다는 완전자율주행(FSD) 구축자 수가 주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킹달러’에 갈길 잃은 환테크족… 달러·엔화예금 모두 ‘뚝’

중동發 위험회피 심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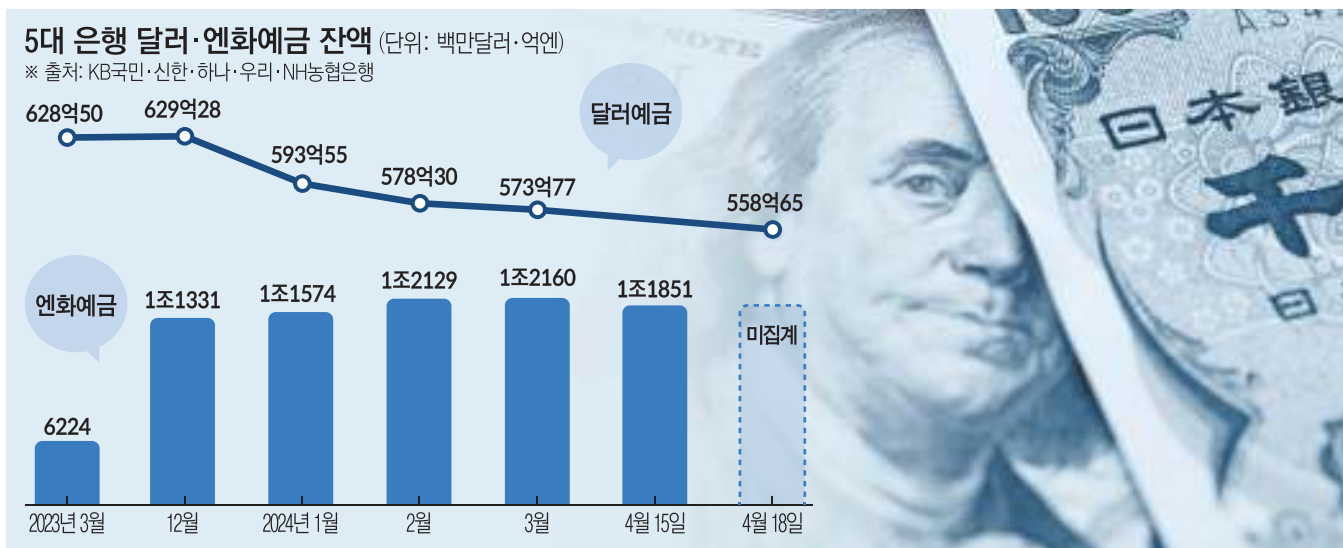
달러예금 20일새 15억달러 ↓

엔화예금은 4개월만에 감소

연말까지 점진적 엔화강세 전망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는 등 ‘킹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달러·엔화예금 잔액은 감소하고 있다. 달러 환차익을 보기 위해 달러예금 투자자들이 돈을 뺐 반면, 일본 엔화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식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8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558억6560만 달러(약 77조4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573억7760만 달러)보다 15억1200만 달러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말(629억2830만 달러)과 비교하면 70억6270만 달러 줄었다.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보기 위해 돈을 빼면서 달러예금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1289.4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엔 1346.80까지 올랐고, 이달 14일에는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터치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392.9원까지 올랐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영향이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습에도 1400원은 넘지 않았다. 일단 1400원이 상반기 중 고점은 될 것 같다”면서 “배당 역송금 시즌도 끝나가는 상황에서, 5월에는 아래쪽으로 더 열려 있

다고 보지만 당분간 1350원대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엔화예금 잔액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1조1851억 엔으로 보름 전인 3월 말(1조2160억 엔)과 비교해 309억 엔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감소세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6224억 엔이었던 엔화예금 잔액은 12월 1조1331억 엔으로

1조엔을 돌파했다. 지난해 하반기 원·엔 환율이 800원대로 떨어지면서 엔화예금 수요는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1조1574억 엔, 2월 1조2130억 엔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투자심리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일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 급락에 우려를 표했고,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수입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행은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엔은 4월 회의에서의 정책 가이던스에 주목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책 피벗 이후에도 정상화의 과정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까지 점진적인 엔화 강세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보험민원 많은 백내장·갑상선 등 질병정보 부족… 갈등 고조

카톡·메시지 ‘의료정보 알리미’ 소보험사로

대형사 5곳 중심서 연내 확대 의료자문 등 크게 줄어들 듯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연내 모든 보험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그간 보험금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 간 입장 차이로 많이 발생하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과 업계의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의료자문이나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확대되면 연내 모든 보험사의 고객이 질병 정보에 대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의료정보 알리미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이나 갑상선(갑상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질병 관련 핵심 정보들을 사전에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대형보험사 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시범 시행 결과 △분쟁 빈발 질환에 대한 소

비자의 이해도 제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비급여항목 관련 보험금 청구율 감소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컨대 A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방법, 어떤 기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같이 담아 일관되게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일부 줄어들거나 민원이 감축되는 등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 다른 회사들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손보험회 관계자는 “이미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다른 회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길 바라고 있고 시행 시점이나 방법 등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손보사들은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과 관련해 고객과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당국과 보험사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6일 보험사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대해상의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를 모범사례로 공유하는 등 의료자문에 대한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고객과의 보험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시행하고 있는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는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수치료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의료자문을 생략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지난해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부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다른 손보사들도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위주로 선제적으로 시행해본 것이고 이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료자문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의사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거부감이 덜하고 민원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dove@

‘홍콩ELS’ CEO 제재까지 안갈 듯

금융당국, 판매사 제재절차 돌입 7월 책무구조도 도입엔 책임 가능

금융당국이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감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감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

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판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의 무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 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홍콩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정상원 기자 jsw@

국민카드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

현대카드, 5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

글로벌 우량 투자자 대규모 주문

현대카드는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채권을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5년 만기 단일물로 최종 가산 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1.7%) 대비 0.35%포인트(p)를 끌어내린 1.35%로 결정됐다. 주관사는 BNP파리바·씨티·크레디아그

리콜·JP모건이다.

이번 채권 발행 공모에는 최종 발행금액 대비 6.4배수가 넘는 32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수요가 몰릴 정도로 매수 열기가 뜨거웠다. 글로벌 우량 투자기관들 50여 곳이 공모에 참여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현대카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대카드는 올해 초부터 피치·무디스·

스탠더드앳푸어스(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자회사이며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에 기반해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와의 시너지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카드는 해외 채권 발행에 앞서 지난달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직접 찾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
정상원 기자 jsw@

KB국민카드는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KB국민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KB국민은행과 협업을 통한 KB국민카드의 여행 특화 체크카드 상품이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 없이 환전시 환율 우대 100%, 해외 현금인출기(ATM) 인출수수료 100% 면제, 해외 가맹점 이용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33종의 통화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전을 지원하며, KB페이



앱으로 카드 신청부터 오픈뱅킹 연결 절차를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KB페이 외화머니’에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여행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정상원 기자 jsw@

삼성 vs 미래

ETF 시장, 피튀기는 ‘1·3위 따라잡기’

KB vs 한투

자산운용사 점유율 상위 경쟁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위와 4위의 1·3위 따라잡기가 두드러지며 일부 운용사의 독점 체제가 흐려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ETF 순자산총액은 18일 기준 137조31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121조5187억 원)보다 13% 넘게 늘어났다. ETF 시장 140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둔 셈이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자산운용(1위)과 미래에셋자산운용(2위), KB자산운용(3위)과 한국투자신탁운용(4위) 간 경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이들 자산운용사의 ETF 순자산 규모와 점유율은 △삼성자산운용 54조900억 원(39.39%) △미래에셋자산운용 50조6017억 원(36.85%) △KB자산운용 10조569억 원(7.32%) △한국투자신탁운용 8조2783억 원(6.03%) 순이다.

◇피터지는 1위 전쟁... 삼성운용 vs 미래에셋운용 ‘대결돌’ =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위 경쟁전이 한창이다. 우선 두 기업 모두 양적 성장에 성공

몫 잡은 1·2위 삼성·미래에셋 점유율 격차 2.54%p까지 줄자 수수료 인하...출혈경쟁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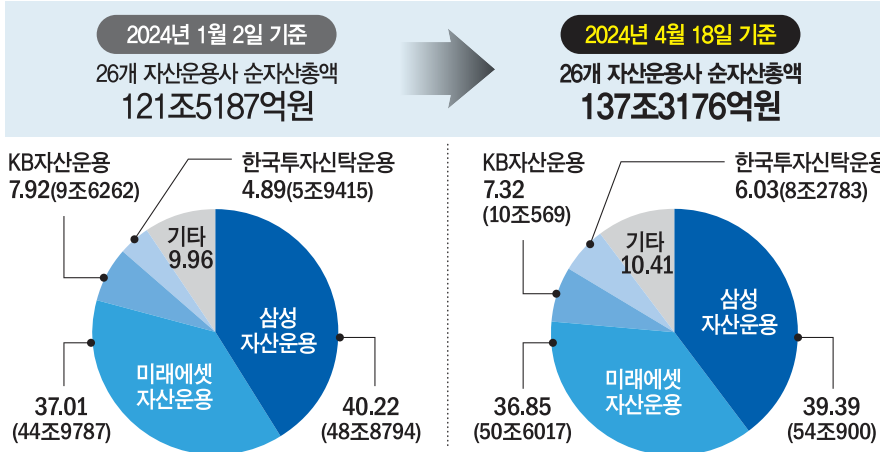
3위 KB 인력이탈 내홍 가운데 역량 강화 한투는 1.14%p 확대

했다. 올해 초 각각 순자산총액 40조 원대를 기록 중이던 두 운용사 모두 현재는 50조 원대에 올라섰다. 1위 탈환을 위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맹추격이 거세다. 2020년 초 26.88%포인트(p)였던 두 운용사의 점유율 격차는 연초 3.21%p로 줄었고, 현재는 2%대까지 좁혀졌다.

두 운용사 간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지면서 출혈경쟁도 심화했다.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며 위기감을 느낀 삼성자산운용이 수수료 인하에 뛰어든 게 대표적이다. 삼성자산운용은 19일부터 KODEX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저 수준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만 원이 안 되는 보수를 부담하는 셈이다.

ETF 상위 1~4위 자산운용사 점유율 (단위 : 억원,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삼성자산운용은 장기 투자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보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형사 힘을 내세워 업계 출혈을 키우고 있고 비판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이 이제는 상품 출시만으로는 승자 독식 구조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수수료 인하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상품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4위전은 한투운용 약진 = 3·4위전에서는 인력 이탈로 내홍에 휩싸인 KB자산운용과 반대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약

진하는 모양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 점유율 1~4위 중 올해 유일하게 점유율이 증가한 곳이다.

앞서 KB자산운용은 ETF 사업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핵심 자리에 관련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기존 핵심 인력들이 퇴사했다. 금정섭 ETF마케팅본부 본부장은 한화자산운용으로 이동했고, 차동호 ETF마케팅본부장은 키움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ETF 펀드 매니저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ETF 시장에서 KB자산운용의 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최근 KB자산운용은 순자산총액이 9조 원으로 하락한 적도 있다.

반면, KB자산운용을 맹추격하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운용사 간 벌어진 ‘인력 쟁탈전’ 속에서 비교적 선방했다. 김찬영 본부장이 KB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공백을 외부 인력 대신 내부 승진인 김승현 ETF컨설팅부장(현 ETF컨설팅담당)으로 채운 점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최근 트렌드와는 상반됐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안정감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상품 개발 역량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성장세에 큰 역할을 했다. 회사 내부에서 ‘효자 ETF’로 손꼽는 ETF 중에는 ‘ACE 미국 30년국채액티브(H) ETF’가 있다. 이 ETF는 최근 순자산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순자산총액이 1조 원을 넘는 상품은 국내 상장한 ETF 849개 중 30개뿐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인하우스 리서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차별화된 ETF 상품 출시와 퀄리티·시의성·차별성을 갖춘 ETF 투자정보 콘텐츠를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한 것이 점유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高유가·환율 수혜”... 기대감 커진 해운·조선株

대금 달러 결제... 환차익 효과 쏙쏙
흥아해운·HD현대미포 강세 마감

중동 전쟁 리스크에 유가와 환율이 치솟자 해운·조선주가 주목받고 있다.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어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유리해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흥아해운은 19일 전거래일 대비 9.71% 급등한 3220원에 마감했다. HMM은 같은 기간 5.73% 상승한 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TX그린로지스(2.40%) △팬오션(1.52%)

) 등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조선주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HD현대미포조선은 9.86% 올라 7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중공업은 2.58%, 삼성중공업은 0.94% 상승 마감했다. 한화오션만 1.8%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는 해운주를 이번 중동 리스크의 대피처로 소개하고 있다. 해상운임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전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로,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길을 지난다. 최고온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벌크 해운선사들

의 경우 직접적인 분쟁 수혜는 아니지만 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부담을 운임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지 수단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조선주 역시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데 다 최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재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미국 외 철강재 수출이 증가하고, 조선용 후판 가격이 낮아진다면 조선사들의 수익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저성장 시대 노후 연금 투자법 위험자산 편입 없이 수익 없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LTCMA 7년간 개발 상품 적용
‘한투TDF...’ 1년 수익률 1위에

누구나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고 싶어 한다. 문제는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기간을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할 때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연금시장 현주소 속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장기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박희운 솔루션본부 전무는 나름의 답을 찾았다.

박 전무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을 선별할 때 리스크 자산 편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 금리가 점점 내리고 있다”며 “채권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비트(beat)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스크 자산을 편입하지 않으면 노년이 됐을 때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 투자의 첫 번째 미션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이라며 “실질 수익률을 위해서는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박 전무의 문제의식은 한투운용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표 상품인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는 국내 주식 대신 채권을 흠바이어스 한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 상승세가 국내 증시에 비해 더 좋기 때문이다.

박 전무는 오랜 연구 끝에 장기투자에서의 ‘리스크(risk) 대비 리턴(return)’ 속제도 일단락 지었다.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7년간 개발해 상품에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LTCMA는 자산의 장기 기대수익률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신탁운용

과 장기 변동성, 자산간 연관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박 전무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자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 운용사가 만든 CMA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주식은 환율출해외 주식 투자자, 채권은 국내 채권이 유리하다는 결론도 원화를 기준으로 한 LTCMA를 통해 얻었다.

박 전무와 한투운용의 전략은 순항 중이다. 17일 기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 시리즈 1년 수익률은 19.58%로, 국내 전체 TDF 중 1위다. 안정적 위험관리 능력 적도로 여겨지는 샤프지수도 2.29로 가장 높다.

박 전무는 투자 전반에서 중요한 전략은 인내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자람은 플러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두고 보는 일을 더 못참고는 하지만, 미래 소비를 위해 인내하는 투자를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현대차證 첫 프리미어PB센터... “VIP 1대 1 만족에 집중”

VIP 케어 전문가 협의체 도입해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슈발생시 전문가 솔루션 제공

“고객 자산가(VIP) 고객분들은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주식·채권·세무·부동산 등 각 전문가가 포진돼 있어 VIP 요구에 맞게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대희<사진> 현대차증권 강남프리미어PB센터 책임매니저는 “예전엔 일반(Mass) 고객과 VIP 고객들을 한 점포에서 모두 관리했지만, 이젠 VIP 고객 한 분 한 분 개별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도 하고 IB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투자 자산을 물색해드리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VIP 모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서울 역삼동에 VIP 특화점



포인 ‘강남프리미어PB센터’를 오픈했다. 현재 본점 영업부를 포함해 전국에 23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서울에선 유일하다. 인력은 총 8명의 프라이빗뱅커(PB)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주식·채권·세무 등의 전문성을 갖췄다. 토털 자산 관리 서비스사가 가능한 이유다.

강남프리미어PB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PB들의 성과평가(KPI)에서 금융상품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는 한편 고객 만족도가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고객 자산증대와 고객 만족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객 맞춤형 관리자를 지정해 케어하는 1대1 맞춤형 관리자 제도도 시행 중이다. VIP 케어 전문가 협의체를 도입해 고객의 자산관리 이슈 발생 시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PB들의 협력을 통한 전문가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 매

니저는 “장기적으로 고객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VIP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매니저는 현대차증권 프리미어PB센터의 대표 투자법에 대해서 “강세장에 편승은 하되 (과열에) 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1등 기업이나 세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을 가져가지만, 큰 사이즈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김 매니저는 강남프리미어PB센터의 궁극적 지향점을 묻는 말엔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는 고객 급화된 리테일 자산관리서비스를 시도하고 있고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고객의 요구와 투자자산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새로운 투자자산과 서비스들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해외수주 목맨 건설업계, 중동 불안에 2분기 전망 ‘안갯속’

국내 주택 침체로 수익성 악화
해외 시장으로 눈 돌리는데
1분기 실적 최근 5년 새 최저
1~10위 기업이 83.7% 싹쓸이
중동 43%…수주지역 싹쓸이까지
무력충돌 지정학적 위험도 커져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에 목을 매 달고 있지만, 수주 전망은 안갯속이다. 국내 주택경기 악화로 대형사는 물론 중견사도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지만, 수주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만 때놓고 보면 해외 수주액은 5년 내 최저 수준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주 텃밭인 중동에선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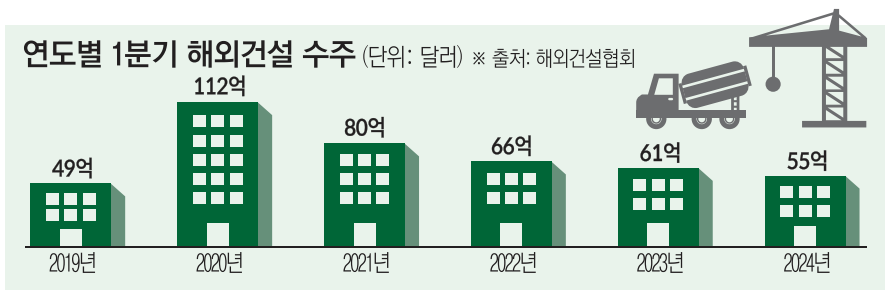
2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55억2000만 달러 규모로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1분기 기준 수주액은 2020년 112억 달러, 2021년 80억 달러, 2022년 66억 달러, 2023년 61억 달러 등이다.

해외건설협회는 1분기 수주 동향과 관련해 “국제 경제 저성장과 불확실성에도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 산업 설비(18억 달러)와 미국 배터리 공장(13억 달러) 수주에 성공했지만, 1분기 수주를 기대한 사우디와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등의 사업은 2분기로 이월돼 수주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해외 수주 내용을 뜯어보면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 실제로 1분기 중동 지역 수주 싹쓸이 현상과 특정 기업의 수주 독식 현상이 확대됐다.

‘수주 상위 10대 기업’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29억 2200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절반이 넘는 52.7%를 차지했다. 이어서HD현대중공업이 11억4700만 달러로 전체의 20.8%에 달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총 46억2000만 달러로 총수주액의



83.7%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분기에는 1~10위 기업의 비중은 총 7.4%에 그쳤다. 해외수주액 통계 집계 이후 누적 기준으로도 상위 10개 기업의 수주액 비중은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누적 평균과 비교해도 올해 1분기는 소수 기업의 수주 싹쓸이 현상이 유독 심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수주 비중이 갈수록 확대해 지정학적 위험 역시 커졌다. 1분기 중동 수주액은 전체의 43.6%인 약 2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 20.4%(12억 4400만 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남미(1.4%→2.4%)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선 수주 비중이 줄었다.

이탈 초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

디에서 수주한 72억 달러 규모 ‘파달리’가 스 증설 프로그램’ 역시 대규모 수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모두 사우디 한 곳에서 이뤄진 수주라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18일(현지시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행하면서 중동 내 전면전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자국 본토를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 내 확전 분위기가 확산하면, 국내 기업의 수주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국내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접 수주를 따내긴 어려운 상황으로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중동은

최근 고유가 기조에 개발 계획이 쏟아지면서 중동 수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내 무력 충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 집중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형사는 물론 중견사도 올해 해외 수주를 확대하려던 기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화광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중견 건설사는 국내 건설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안정적인 재원에 기반을 둔 관련 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내 분쟁이 국지전으로 그친다면 국내 기업의 수주 전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내 분쟁으로 이란이 중동 석유 수출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은 만큼 국내 기업의 수주가 막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시세차익 5억? ...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에 쏠린 눈

잔여 14가구 대상 오늘 접수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던 ‘더샵 둔촌포레’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둔촌주공과의 일대일 비교는 선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22일 총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잔여가구는 모두 84㎡A타입으로, 최고 18층까지인 이 단지에서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한 가구가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2층 12억 9300만 원 △3~4층 13억 2220만 원 △7층 13억 3570만 원 △8~10층 13억 5180만 원 △11~13층 13억 6800만 원이다.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 둔촌현대1차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후분양 아파트다. 같은 둔촌동에 ‘단군 이래 최대재건축’으로 불리는

‘미니 둔촌주공’으로 인기몰이

학군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권
“5억~7억 가격차 시세차익 기대”

1만2000가구 규모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다. 둔촌주공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둔촌포레는 미니 둔촌주공으로도 불렸다. 이에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93.0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둔촌주공과 시세를 비교하며 차익을 기대하는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둔촌주공 84㎡형의 최근 분양권 실거래가는 올해 들어 18억 원에서 19억 원에 형성돼 있다. 2월 28일에는 20억 원 가량에 거래되기도 했다.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분양가가 12억~13억 원대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라고 보고 있다. 둔촌주공과 교육인프라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단지 규모·리모델링 한계 있어

전세 놓고도 둔촌주공과 경쟁
“가격 70~80% 그칠 것” 주장도

여겨진다는 점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 “인근에 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 길동과 가깝기는 하지만, 둔촌포레 학군은 둔촌주공과 공유되기 때문에 둔촌주공과 시세가 비교될 것”이라며 “둔촌포레 인근에는 연식이 오래된 단지가 많아 리모델링 단지 이긴 해도 인근 신축과의 비교해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세차익은 둔촌주공과의 가격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둔촌포레는 단지 규모와 리모델링이라는 점을 볼 때 매매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품적 부분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는 단지”라며 “전세거나 매매가 모두 둔촌주공의 70~8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둔촌주공과 전세 세입자를 두고 경쟁

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이 해제된 둔촌주공과 달리 둔촌포레는 1년의 전매제한 규제에 걸려 있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존재하지만, 둔촌주공 역시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둔촌포레에서도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둔촌주공 전세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된 뒤에야 세입자가 나타날 것”이라며 “둔촌동 신축 아파트를 찾는 세입자들이 둔촌주공 전세가가 떨어지면 연락을 달라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둔촌포레 전세가가 저렴함에도 수요자들은 둔촌주공을 우선하고 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둔촌포레의 84㎡형 전세는 7억 원 대에 나와 있고, 둔촌주공의 경우 최근 전세가가 낮은 매물이 소진되며 8억 원대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허지는 기자 hje@

국토부·고용부·경찰청 합동으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 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허지는 기자 hje@

금주의 분양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22(월)	접수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 1순위
4/23(화)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래히 1순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1순위
		부산	동래구	운천동	동래에코밸리스아시아드 1순위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A2) 1순위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A4) 1순위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 2순위
4/24(수)	접수	경기	성남시	신촌동	엘리프성남신촌A2(공공분양) (~4/25)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래히 2순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2순위
		부산	동래구	운천동	동래에코밸리스아시아드 2순위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A2) 2순위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A4) 2순위
4/26(금)	오픈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강원	원주시	원동	원주푸르지오더센트럴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차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151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는 총 151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939가구에 573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한 보행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계획해

인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했고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매력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타운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도 담겼다.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있다. 마포구민 체육센터와 망원유수지체육공원과 연접해 생활환경도 좋은 편이다. 망리단길과 합정동 상권도 생활권 내에 있다.

전보규 기자 jbk@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에 필요시 특수학급 의무 설치 추진”

특목고유치 총선공약 공론화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다” 밝혀
성수공고 부지에 2029년 개교
“소유주들과 마지막 협상 중
공·사립 학교 특수학급 의무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동구 소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를 2029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설립하기로 결정했



다. 지난해 행정예고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최근 제22대 총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체부지 검토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

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난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어쩔 수 없이 공론화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 선거에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모 후보 공약으로 장애인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진학교, 나래학교에 이어서 동

진학교가 특수학교 설립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물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의무라는 게 애매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온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우리가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

고 사정한다”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해드릴 데니 제발 해달라고 사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70% 가량이지만, 사립은 2% 남짓”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일정 별직조항을 넣는다든지 등 여러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책 읽는 청계천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 마련된 책읽는 맑은빛가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합원 570명에 ‘민주노총 탈퇴 강요’ 檢, SPC 허영인 회장 등 관계자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사진〉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으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 과황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



견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은 황 대표를 질책하며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대표 지위 박탈을 지시했다. 황 대표는 이에 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비파트너즈 소속 사업부장·제조장·B/FMC 등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제조장은 B/FMC들이 탈퇴 실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탈퇴 작업)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노총 지회장도 근로자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작업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고3 이과생 비율 감소… “수학·과탐 부담 큰듯”

종로학원 3월 모의고사 분석

의대 모집정원 확대 효과로

N수생 이과비율은 높아질 것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 중 이과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열풍 등으로 인한 이과 선호 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수학·과학 학습 부담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28일 치러진 2025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채점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과학탐구 과목 응시 비율은 47.2%에서 44.9%로 줄었다. 같은 기간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사회탐구 응시 비율은 52.8%에서 55.1%로 2.3%포인트(p) 늘었다.

국어 과목에서도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응시 비율이 지난해 37.6%에서 올해 37.4%로 0.2%p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 중

62.6%는 과학탐구 응시를 선택한 이과생들이었다. 반면, 문과생 선택 비율이 높은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 62.4%에서 올해 62.6%로 늘었다.

수학 선택 과목 중에서 이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기하’ 과목의 응시 비율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2.3%로 낮아졌다. 앞서 3년 전인 2022학년도 3월 학평 때는 5.8%가 기하 과목을 선택했으며, 2023학년도에는 4.1%가 선택했다.

다만 미적분 선택 비율은 지난해(43.4%) 대비 소폭 늘어 43.8%였다. 올해 ‘미적분’과 ‘기하’의 응시 비율을 합한 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6.1%였다.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53.9%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금과 같은 이과 선호 현상을 감안하면 수학 과목에서 최소한 미적분과 기하를 합산한 비율이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높았어야 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하다”면서 “최근 문과생들도 수학에서 미적분 과목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것을 알고 미적분 선택 비율을 늘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학 과목에서도 문과생이 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과 선호 현상으로 이과생이 훨씬 늘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비율이 줄어든 것은 수학·과학 학습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과에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부 대학이 자연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자연계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이과생 중에서도 사회탐구 응시가 늘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임 대표는 “서울·연세·고려대 등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과학탐구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과탐 응시를 지정했고, 사탐 과목 선택이 가능한 대학은 중하위권 대학 등 일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의대 모집정원 확대 효과 등으로 N수생의 이과 비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임 대표는 “재수생 등 N수생들을 보면 이과생은 최소 10%는 늘어났다”면서 “향후 6~7월 반수생도 합류하게 되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이슈로 이과 반수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장애는 차별 대상 아닌 차이…사회적 인식개선 앞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발달장애 예술가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
수상자 3명에 예술가 인턴십
작품 이미지 활용 카드도 제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는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아닌 차이로 존중해 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1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발달장애 예술가를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에서 “하나금융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할 것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3회 하나 아트버스’ 미술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두 달간 전국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회화 분야 548명, 디지털아트 분야 36명 등 총 584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다.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인 등 3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성인 부문 수상자 중 선발된 3명에게는 장애 예술가 육성 사회적 기업인 ‘스프링샤인’에서 6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프로그램



함영주(가운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에서 성인 부문 대상을 받은 박재영(오른쪽) 작가,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손우진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출퇴근부터 시작해 업무 수행 전반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인턴십을 수료한 강동우 작가의 경우 웹툰 작가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모전 성인 부문 대상은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의 박재영 작가가 받았다. 혼돈과 안정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고장난 신호등 때문에 엉켜버린 도로의 모습을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방향 없이 배치된 버스들은 대칭적인 화면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균형과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의 도시 안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작가의 시선을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은 ‘나의 안식처’라는 작품을 공모한 손우진 작가가 수상했다. 독창적인 점·선·면·색의 활용과 조화롭고 다채로운 화면 구성은 얼마나 오랜 시간 작가가 반복적으로 매체를 실험하고 탐구했는지 잘 보여준다. 자유로운 표현력과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관람자에게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작가가 만든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하나금융은 24일까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수상작들의 전시를 진행하며,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나금융 복합문화공간이자 개방형수장고인 하트원(H.art1)에서 특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하나카드와 연계해 대상을

받은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한정판 카드 디자인도 제작하기로 했다. 선정된 50개 영업점에서 1000매 한정으로 발급된다.

한편, 하나금융은 △하나 파워 온 혁신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발달장애 및 취약계층 취업 지원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극단 라하프의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후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마라톤 캠페인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공식 후원 및 임직원 참여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 비인기 종목, 장애인 체육 후원 등 스포츠 분야 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통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KB손보 ‘골드멤버의 날’ 시상식
장성호 LC·박미경 대표 매출대상



왼쪽부터 박미경 KB손해보험 광주지역단 상무 지점 박미경대리점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 장성호 일산지점 설계사.

사진제공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연도대상 행사인 ‘2024 골드멤버의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KB손보 영업가족 총 420명이 올해의 골드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KB손보의 ‘골드멤버’는 정도(正道) 영업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탁월한 보험 영업 성과를 이뤄낸 소수 정예의 영업가족에게 부여되는 타이틀이다. △매출 △신인 △도입 △육성 등 각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영업가족에게 부여된다.

골드멤버 최고상으로 30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는 ‘매출대상’에는 일산지역단 장성호 일산지점 설계사(LC)와 광주지역단 상무지점 박미경 대리점의 박미경 대표가 설계사부문과 대리점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역대 골드멤버 매출대상 출신 중 1위에게 주어지는 ‘크라운멤버 대상’에는 구미지역단 금오지점 주식회사 골드멤버 대리점 박상운 대표가 선정됐다.

정성원 기자 jsw@

편집기자협회, 종로문화재단과 ‘문화예술·언론 상생’ 업무협약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사진 왼쪽)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과 ‘문화예술과 언론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문화예술과 언론의 상생 △각 분야에서 구축한 전문성 및 인프라 지원 △언론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 구축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문화·홍보 콘텐츠 상호 활용 등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오는 7월 서울 종로에서 예정된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전시를 시작으로 언론과 문화예술의 상호 협력을 위해 종로문화재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maccam@
사진제공 한국편집기자협회

“사내 1% 공인된 전문가…임원급 처우·보상”

LG전자, 연구·전문위원 26명 새로 선발

LG전자가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준비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인재를 연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연구·전문위원은 LG전자가 연구개발(R&D) 및 디자인, 품질, IT, 생산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커리어 비전 제시와 핵심인재 육성 차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임원급에 준하는 처우와 보상을 받으면서 각자 전문분야에 보다 몰입해 심도 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LG전자는 최근 2024년도 연구·전문위원 인사를 단행하고 서울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임명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연구위원 18명, 전문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선발됐다.

임명식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를 포함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인사책임자(CHO) 등 최고경영진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 수석 연구·전문위원으로 승진한 6명도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건넸다.

조 CEO는 신입 연구·전문위원에게 임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LG전자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공인받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전문위원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LG전자의 고(高)성과 조직 전환에 앞장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도 강조했다.

CTO부문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배건태(44) 박사는 올해 최연소 연구위원이 됐다. 배 위원장은 강화학습 기반 AI 능동제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



LG전자가 미래준비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인재를 연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조주완(왼쪽) CEO가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신입 연구·전문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받았다. 역대 최연소 전문위원으로 선발된 신성원(44) 위원은 CX센터 산하 LSR고객연구소에서 미래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사업기회 발굴을 담당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부터 전문성/역량에 대한 심층 리뷰, 최고경영진 주관 선발 위원회

의 엄격한 심의가 이뤄진다. 직무별로는 전체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소수 인원만이 연구·전문위원의 영예를 얻는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인재를 포함하면 LG전자에서 총 230여 명이 연구·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분자생물학 연구로 한국 생명과학 기틀…박상대 명예교수 별세

한국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의 토대를 마련한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대 문리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세인트존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처장, 유전공학연구소장 등을 지냈



고 분자생물학과와 생명과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지금의 한국 생명과학이 있기까지 큰 공을 세운 학자로 평가받는다. 1989년 창립을 주도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현재 약 1만86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경자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와 아들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며느리 김윤하 스페인 마드리드대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

됐다. 고별식은 24일 오전 10시, 발인은 11시 예정이다. 장지는 천주교 용인공원 묘원이다. 02-2258-5940

부음

▲김문희씨 별세, 경수현·지현(안양시청)·미현(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과장)·상현(수원시청소년정년재단) 씨 모친상, 이재준(안산시청)·김광태(연합뉴스 영문뉴스부 기자) 씨 장모상, 김현자·이선화(경기도교육청) 씨 시모상 = 20일, 경기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303

호, 발인 22일 낮 12시, 031-467-9000

▲유희식(전 조선IS 상무) 씨 별세, 정명순 씨 남편상, 유경미(현대홈쇼핑 쇼호스트)·상준(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 씨 부친상, 김영석(남양주 얼굴이미소치과원장) 씨 장인상 =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2일 오후 3시, 02-3010-2000

▲박성일(주식회사 시티오나인 대표이사) 씨 별세, 고희정 씨 남편상, 박서연·민규 씨 부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40분, 02-3010-2000

인사

◆이투데이<전보>◇편집국 △금융부차장 문선영 △디지털뉴스부장 직무대행 이재영 △정치경제부세종팀장 박도훈 △정치경제부 정치팀 차장대우 김동호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과장급 전보 △화학사고예방과장 이지윤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부단장) 임동희

조장옥 칼럼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20여 년 전 홍콩의 한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에 반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이 크게 느껴졌다. 가르치던 박사과정 제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다. 어느 날 그들 가운데 한 학생이 휘파람으로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냐고 물었더니, 모 주석이 국민당에 쫓겨 장정을 가면서 지은 노래라고 한다. 그래서 문득 물었다. 모택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그의 대답은 공 6, 과 4란다. 큰 희생을 치른 대약진운동이나 문화혁명과 같은 과거 작지 않지만 중국을 통일한 공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의 대답을 듣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에 관하여 우리의 대학원 학생에게 같

은 질문을 했을 때 유사한 답이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용서할 수 없는 독재자, 한국을 일으켜 세운 지도자, 용서할 수 없는 중북주의자, 민주화를 이룬 투사 등 한편으로 치우치기만 한 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역사의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 적어도 균형 잡힌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고 중국의 역사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 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과 행동을 한다. 그 가운데 모두가 잘못되었거나 반대로 모두 옳기만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추앙하는 성인들에게도 보는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누군가에게는 전적으로 옳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적으로 그르다. 인류 역사는 그런 절대적인 편향성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갈등과 증오로 점철되어 왔으며 때로는 크디큰 희생을 치렀다.

과거의 인물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름 장단점을 가려 공과를 평가하여 정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 그 가운데에서도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극과 극이다. 많은 한국인에게 이승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은 독재자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뿌리이다.

1948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 80% 가까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고 자본주의를 지지한 비율은 10% 조금 넘었다. 지금처럼 원칙 없는 여론조사로 국체를 정했다면 북한과 크게

독재만 보고 전국·경제발전은 외면

장단점 가린 공과평가 너무나 인색

온당한 역사해석이라 말할 수 있나

과거집착 털고 미래 보는 사회돼야

다르지 않은 체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국체를 바로 세운 것만으로도 그는 국부로 추앙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변형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박정희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느리긴 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에 그의 공이

크다는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는 국가변형에 대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방향 설정에 있어서 탁월하였다. 무엇보다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서독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흘린 눈물의 진정성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본다. 독재만을 보고 그가 빠르게 이룬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보지 못한다면 어찌 역사를 바로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누가 되었든 극과 극이고 그 때문에 서로 적지 않은 갈등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까지 안 된다고 하는 지경이 되었다. 과거의 인물, 사건, 업적에 대한 평가는 공과를 가려 역사의 선반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본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현재의 선택이 그릇되고 미래가 흐려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것은 등한히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부모세대보다 잘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미래가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연인과 부부 사이, 고부 간,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길 수 있는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강연 프로그램이 인기다. 얼마 전에는 고지식한 아빠와 자기주장이 강한 딸 간의 의견 충돌에 관해 강연자는 지원(支援)과 지지(支持)의 차이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아버지로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딸이 내린 결정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고 했다. 울림이 있었다.

지원과 지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전적 정의로 보면 차이가 있가. 지원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다. 반면에 지지는 주로 상대의 목표나 견해에 대해 지지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 보면 지원은 문제 해결 중심이지만 지지는 지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 도움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이 필요할 때도 많지만 웬지 지지가 마음에 더 와닿는다.

안전은 최고가치로 여기는 건설문화 절실

그렇다면 국내 건설산업은 지원이 필요할까 지지가 필요할까. 우리는 자주 건설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이니, 그리고 중요한 산업이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 어떤 때는 규제가 과하니 없애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모두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자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안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 이를 알기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업도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산업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애초 계획대로 건설

기고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안전을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노릇이고, 건설기업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변명만 늘어놓기도 어렵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즉, 건설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성공 요인을 공사비와 공사 기간 그리고 품질로만 정의하지 않고, 안전을 최고가치로 인식하는 건설기업의 문화는 필수다.

산업의 최고 가치가 안전이라는 인식하에 기업은 안전한 현장 환경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근로자가 안전 규칙을 준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책 등을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은 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기업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에 긍정적 피드백과 응원 필요해

안전과 관련해 기업의 뚜렷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과 더불어 지지가 필요하다. 기업의 노력과 목표를 응원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보자. 지원 정책이나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종종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응원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훼손된 건설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복원하고,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보자.

“부동산시장 최대변수는 정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입법 절차가 두 달 넘게 공회전 중이다.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법안이지만,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야당과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서울시내 복수의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는 안전진단 시행 시점조차 제대로 못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통과되면 안전진단이 사실상 필요 없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

노트북 너머

정용욱

부동산부 기자



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자동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정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책 따라 시장이 요동칩니다. 경제 변수는 그다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시장 전망을 물어보면 심증팔구 돌아오는 대답이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장기 시장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가 부동산의 변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남은 한 달이라도 국회 국토위는 부동산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 정책 변수로 부동산시장이 더 흔들려선 안 될 일이다. 정치가 부동산시장의 변수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에서 시작되길 바란다. dragon@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이마누엘 칸트 명언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선다면 앞으로 나아갈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독일 철학자다.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한 그는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며 비판철학을 탄생시켰다. 주요 저서에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이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24~1804.

☆ 고사성어 / 사이후이(死而後已)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살아 있는 한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 삼국지(三國志)에 나온다. 제갈량(諸葛亮)이 위(魏) 나라를 공격하기 전 그의 출사표(出師表) 후편에서 한 말이다. “한(漢) 나라의 위업은 익주(益州) 같은 변경에 안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위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고 왕업을 중원에 확립해야 합니다. 신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죽고 나서야 그만둔다[死而後已]는 각오로 출정합니다.”

☆ 시사상식 / 시노리지(seigniorage)

봉건제 시절 시노르(seigneur·영주)들이 화폐주조로 이득을 챙겼던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을 뜻한다.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의 재원이 되는 시노리지의 연간 총액은 ‘유통통화량×시장이자율-(제조비용+유통비용)’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1만 원권의 경우 종이·잉크 등의 재료비와 인쇄비용이 1000원이란 할 때 시노리지는 9000원이다. 중앙은행은 1000원의 비용을 들여 9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농식품에 더해야 할 세 가치

농식품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변한 것을 실감한다. 최근 사과 가격 상승을 보는 소비자 인식이 과거와 매우 다르다.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보는 국민의 눈도 파다다. 아침 식사로 채소 샐러드, 과일 몇 조각,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먹는 도시 젊은이들이 많다. 밥, 국, 반찬을 먹고 출근하는 과거 세대와는 농식품을 보는 인식이 다르다.

젊은층에게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사과 가격이 중요하다고 한다. 필자는 최근 사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정부대응을 주제로 젊은이와 한참 논쟁을 했다. 농산물 가격은 물론 농식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식량의 소중함, 생산 농업인 어려움, 기후변화, 농식품 가격지 등 여러 요인을 들어 설명해도 반응은 시큰둥하다.

‘농식품 부문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부문도 어렵다’,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시대트렌드가 변하는 구나, 농식품 가치와 중요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야 함을 실감한다. 새로운 관점의 농식품 가치는 무엇일까?

첫째, 농식품 산업을 ‘치유산업’으로 인식하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은 건강과 안전, 그리고 힐링으로 이전한다. 농식품산업을 ‘먹거리 산업’에서 ‘치유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음식치유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힐링 장소가 산림이다. 산림에서의 걷기가 이제에는 도심에서 맨발걷기로 각광을 받는다.

치유농업도 2021년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고령화되고 퇴직자가 많아지는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치유농업의 효과도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입증된다. 해양치유도 크게 각광을 받는다. 전국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가 건설 중이며, 지난해 11월 전남 완도군에서 우리나라

논현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개장됐다. 치유관광 육성을 위한 관련 법도 추진 중이다. 농산물을 먹거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치유자원으로 인식하자.

둘째, 농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전환하자. 농업과 문화의 관련성과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농업의 시작이 문화이고 끝이 문화이다. 예술, 종교, 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농식품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고급 상품으로 만들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는 농경지와 농부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있다. 땀을 흘리는 농장이나 목장에 꽃과 나무, 음악과 예술을 접목시켜 관광 공간, 체험공간, 예술 공간으로 전환시키자. 문화

의 옷을 입혀야 농식품 수출도 크게 증대될 수 있다. 뉴욕 한복판의 한국 식당에 치유음식을 공급하자. 한국 식품을 치유 음식으로 인식시키고, 맛과 향기를 더하여 고급 문화상품으로 만들자.

셋째, 한국 농업을 최첨단 기술산업으로 전환하자. 농산물생산, 유통, 가공, 저장, 수출 등 많은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자. 이미 스마트팜, 푸드테크, 바이오, 농자재 등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활용된다. 시몬 페레스고 이스라엘 대통령도 농업은 95%의 기술과 5%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인식해 이스라엘 농업을 혁신했다.

한국 농업도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한 먹거리 산업을 넘어서자. 건강, 힐링, 문화, 기술이 융복합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전환하자. 한국 농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변신할 때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먹거리 탈피해 치유산업으로 전환

농업현장에 예술 입혀 문화상품화

첨단기술 접목해 스마트산업 지향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원’ 요구 말아야

사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을 2년여 만에 다시 상회했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2021년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3위다. 경제 위기에 빠진 튀르키예(71.12%)를 제외하면 2위 아이슬란드(7.52%)와도 큰 차이가 없다. 눈길 가는 것은 순위·수치만 아니다. 추세도 걱정이다. OECD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9.52%에서 올해 2월 5%대로 지속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3.81%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5~7%대로 올라섰다.

우호적이지 않은 외생 변수가 줄줄이 대기 중이란 점은 우려를 더한다. 중동 정세의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인상 기류가 최대 불안 요소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장중 4% 넘게 올랐다.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90달러를 넘겼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을 소환하는 수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시장의 종가는 1382.2원이다. 작년 말 종가(1288.0원)보다 7.3% 올랐다.

미 달러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

리 기조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 자산 쏠림이 겹친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원화 가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 연준이 달러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교역국 26개국 통화 가운데 칠레, 일본 등 다음으로 7번째를 기록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이 쉬운 국내 금융시장과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급해 한다.

고환율은 무역수지에 유리하다. 수출 제조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건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25만 원’ 살포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는 것에서 좋은 정치가 시작된다. 상생의 출발점도 같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中企 단비 될 동행축제 ‘시동’

마감 후

조남호

중소중견부 부장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소비침체가 극심한 상황이라 경영이 쉽지 않다.”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다.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선 ‘4고(高)’에 따른 한파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됐던 고금리와 고물가 외에 올해 들어 환율과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1382.2원을 기록하며 작년 말 종가보다 7.3%나 상승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연초 3개월간 7% 넘는 급등세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상승 폭이 커서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부담이다. 두바이·브렌트유 가격은 최근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으며 중동 정세의 불안 등으로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와 다르게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시름 깊어

4고와 관련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0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포인트(p) 상승했지만, 지난달보다 0.8p 하락해 지난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중소기업이나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라

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5% 늘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또 같은 기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31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과 관련한 소비 진작 행사인 동행축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미리 온 동행축제’에서 이미 효과 입증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로, 매년 하반기 연 1회 열렸던 것이 2022년 2회, 작년 3회로 확대됐다. 성과도 좋았다. 지난해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9925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애초 연간 목표였던 3조 원 대비 133% 초과 달성한 것으로, 12월 상향 조정된 목표인 4조 원에 근접했다.

5월 시작될 올해 첫 동행축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대감은 경쟁률에서도 드러난다. 3월 진행된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참여 희망 모집에 113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했다.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선 39개 채널을 통해 1700여 개 중·소상공인 제품들이 참여해 600억 원대가 넘는 매출도 올렸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온 국민의 힘이 더해져 어려움 속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고비 넘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spdran@

⚙️노무, 특!

근로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

최근 서울 소재 한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4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해 4월 1일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라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려고 날짜도 맞춰서 한 달 전에 통보하였다.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 만약 5월 1일에 통보하고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유효한 해고예고인가? 그렇다.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규정이 없다. 근로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을 준용한다. 민법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다(민법 제157조). 4월 1일에 통보한 회사는 30일에서 하루가 모자란다. 그럼 하루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해고예고 예외도 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그중 하나다. IT업체인 B사는 지난해 말 프로그램 개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수습 평가 서약서까지 작성하였다. 업무능력이 면접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부적격 평가로 2월 29일까지 일하고 나서 해고하였다.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할까?

민법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해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다(민법 제160조제1항). 근로기간의 기간 말일인 2월 29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고, 역에 따라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개월’이다.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를 법대로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개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냉장고부터 올레드TV, 워시타워까지!
이제 원하는 모든 가전을 구독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관리해주고,
거기에 든든한 무상보증까지—
가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LG전자 구독



LG전자 베스트샵 또는 LGE.COM에서 원하는 가전을 구독해 보세요

LG전자 구독 **subscribe**

* 제품별 계약조건에 따라 구독기간은 상이하며, 총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음. 계약기간이 3년 이하 상품은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납/반납/인수(비용 추가)여부를 필수로 선택 가능. 4년~6년인 상품은 계약만료 후 제품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